

禮山百濟四面石佛의 考察

朴永福

禮山文化院  
禮山鄉土史研究會

印이라고 推定된다. 四面佛中에 南向한 本尊如來坐佛像이다.

#### (2) 北面(圖面 2, 圖版 2 (2), 7-(1))

實物大의 立佛像으로 佛頭와 양손목은 역시 缺失되었으나 佛頭는 調査過程에서 收拾되었다. 光背는 무늬가 없으며 약간 안으로 휘어지게 다듬고, 南面 佛頭와는 달리 그 中心部에 佛頭와 頭光을 붙여서 彫刻하였으며, 頭光은 佛頭 外廓에 두줄의 圓圈文을 돌리고 內圓에 9葉의 單瓣蓮花文을 새겼다. 法衣는 通肩으로 유연한 어깨선에 깊은 陰刻으로 表現하고 가슴은 깊게 드러나 속내의와 허리며 매듭이 잘 보인다. 가슴아래는 좌우 대칭으로 U字形의 깊은 주름이 7段이고 裙衣의 끝단은 Ω字形으로 발목을 감쌌으며 발은 露出되어 正面을 向했다. 臺座는 파손되었으나 오른쪽 발 옆에 單瓣蓮花文 2葉이 殘存하고 있어 形態는 半타원형으로 약간 휘어져 앞으로 突出되었던 것 같다.

#### (3) 東面(圖面 3, 圖版 3-(1), 2)

이 立佛像은 原來는 땅속에 埋沒되었던 部分으로 北面에 있는 立佛像과 法衣, 印契等 거의 같은 形式을 갖추고 있으며, 역시 佛頭와 양손목은 缺失되었고 왼쪽 발목 臺座가 破損되었으며, 臺座의 一部에 蓮花文이 남아 있다. 光背는 北面과 같은 圓圈文 內圓에 9葉의 單瓣蓮花文이 있고 佛頭는 頭光에 붙여서 彫刻하지 아니하고 南面佛과 같이 空間이 있으며 別個로 만들어 붙였던 흔적이 있다. 부러진 목부위에 작은 구멍이 있는 點으로 보아 製作 당시에 실수하여 떨어진 것을 결합시켰던 것이거나 구멍을 이용하여 결합시켰던 것 같다.

印契는 三國時代 通印이다.

#### (4) 西面(圖面 4, 圖版 4-(1))

이 小立佛像은 쓰러졌을 때에는 윗면으로 露出되었던 部位로 磨滅과 이끼가 끼어서 잘 알아 볼 수 없었다. 佛頭와 양손목은 缺失되었고 圓圈文 頭光 內圓에 9葉의 單瓣蓮花文이 새겨지고 法衣는 通肩이며 속내의와 허리며 매듭이 잘 남아있다. 法衣는 U字形으로 허리部分까지는 알아 볼 수 있으나 그 以下는 磨滅되었다. 印契는 別造로 만들어 끼웠던 구멍이 남아있다. 四面佛像中 가장 작은 立佛이다.

全體的으로 4面의 佛像中 南向한 坐佛이 主尊佛이며 西面은 너비와 높이가 가장 작고 北面 立佛像은 거의 實物大로 같은 크기이나 東面立佛이 北面立佛보다 約 40cm 낮게 彫刻되어 서로 水平이 되지는 않았다.

## 2. 建物址 遺構 및 遺物(圖面 5, 圖版 7, 8)

發掘調査 結果 이 四面石佛이 있는 垆地는 주위에 비해 약간 높으며 南向한 建物址는 平面이 長方形으로, 규모는 6.3m×5.5m의 正面 3間, 側面 3間의 單層瓦家 建物이었는데, 石佛을 保護하고 禮拜할 수 있는 法堂으로 推定되며 後代의 重建時에 다시 北으로 1間, 東西로 2間을 달아내어 正面 5間, 側間 4間의 建物로 擴張된 것 같다. 이 法堂에서 南쪽으로 約 11m 떨어진

곳에 方形塔의 基壇 塊石과 주변에서 屋蓋石 破片 2點, 크기가 다른 3點의 寶輪이 出土되었는데 무늬는 모두 單瓣蓮花文이다. 塔材로 이밖에 水煙片 等은 石佛과 小形寶塔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四面石佛의 佛頭는 주변에서 5個가 發見되었으며, 北面 立佛像의 佛頭는 처음 調査時에 收拾되어 이 四面石佛을 人爲的으로 쓰러뜨리고 佛頭를 破損시켰음을 보여 주었다. 이밖에 작은 佛頭와 臺座, 佛像等으로 보아 四面石佛 以外에도 다른 佛像들이 있었음도 알 수 있었다.

이 建物이나 石佛等의 存續年代는 遺構나 遺物로 確연하게 알 수는 없으나, 이 四面石佛과 接해, 新高자 권영석氏 5代先祖인 權擇氏의 墓所가 있는데 安東權氏世譜<sup>4)</sup>에 의하면 墓高翔洞 彌力堂丁坐……이는 墓所의 활개가 四面石佛에 接해 있으므로 幽宅이 四面石佛이 서 있었을 當時에는 埋葬이 不可能했다고 생각되며 이곳이 彌力堂이라고 불리어 졌음을 記錄으로도 알 수 있다.

輿地圖書 德山條 ①〔山川〕 象王山在縣西北間十里自伽倻山來, ② 北外也面……花田里自官門北距十五里 ③〔寺刹〕 靜修庵在縣北二十里象王山下<sup>5)</sup>라 하여 輿地圖書가 편찬되었던 朝鮮英祖朝(1757~1765)에는 작은 庵子인 靜修庵이라는 名稱이 있었고 方位, 거리, 마을이름 等으로 보아 이곳으로 推定되는데 現在 行政區域上으로는 花田1區이며 지금도 마을에서는 高翔골이라고도 부른다. 權氏의 5代祖라면 約 150~200年前으로 靜修庵은 볼 수 있으므로 1800年代에 廢庵되었다고 推定된다.

### Ⅲ. 地理的環境 및 歷史的背景

忠淸南道는 韓半島의 거의 中心部에 位置하고 있으며 車嶺山脈에 依해 東南地形區와 北西部로 나누어진다. 現在 行政上 天安市와 天原, 牙山, 禮山, 唐津, 瑞山, 洪城郡 等은 北西部地域으로 全國的인 人口 조밀지대를 이루고 있다.<sup>6)</sup>

牙山灣으로 流入되는 插橋川, 曲橋川 流域의 禮唐平野, 牙山丘陵, 伽倻山脈, 泰安半島, 洪城丘陵 等 一帶는 準平原化한 全體가 低平하고 광활한 平野地帶로 되어있다. 特히 禮唐平野는 忠南 南部 內浦平野와 더불어 二大平野에 屬하는 農産物의 集産地라고 할 수 있다.

西海岸은 黃海로 中國의 遼東半島와 華北地方과 韓半島가 連續되었던 比較적 平坦한 陸地였던 것이 地盤의 沈降으로 인해 海岸線이 매우 복잡한 地域이다.

禮唐平野는 西海岸과 牙山灣의 內陸地域으로, 禮山을 中心으로 한 瑞山, 唐津, 牙山一帶의 古代文化는 일찍이 先史時代부터 住民이 棲息生活을 營爲하여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禮山郡 新岩里, 瑞山郡 瑞山邑, 安眠面, 唐津郡 唐津邑, 牙山郡 屯浦, 天原郡 廣德面 등에서 石器, 土器, 半月形石刀<sup>7)</sup>와 瑞山邑 大山中學校 所藏品인 石鏃, 石斧, 土器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西海岸 櫛文土器文化圈에 屬하며<sup>8)</sup> 富川郡 德積島, 瑞山郡 近興 新津島里에서는 櫛文·無文時代 遺蹟地가

4) 註 3) 同

5) 國史編纂委員會 《輿地圖書》上卷 1973, pp. 425~429

6) 《忠淸南道誌》上卷 1979, p. 43, km<sup>2</sup> 당 323人으로 全國的인 人口조밀지역의 하나임.

7) 金元龍編, 《韓國史前遺物遺蹟地名表》1965, pp. 65~73.

8) 安承周, 〈瑞山大山半島古代文化의 性格에 關한 小考〉《百濟文化》第三輯, 1969, pp. 55~64

있음이 報告되었다.<sup>9)</sup> 禮山郡 東西里 出土 銅劍, 劍把形銅器, 銅鏡 等 一括遺物, 牙山郡 南城里, 監峙面 白岩里, 燕岐 鳳岩里 等은 韓半島 青銅器文化가 가장 활발하게 꽃피었던 地域으로 뛰어난 遺物들이 出土되었으며, 時代는 대체로 B.C. 3세기초~B.C. 2세기중엽으로 지적되었다.<sup>10)</sup>

百濟의 國家形成時期에 對하여는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初期內容을 믿을 수 없다는 論議가 많이 있어 百濟가 馬韓의 여러 部族을 統合하여 强盛하게 되는 것은 古尙王(234~286)때라는 것이 通說로 되어 왔다.<sup>11)</sup>

그러나 近年에 初期記錄을 不信해야 할 積極적인 理由가 發見되지 않는다고 하여 溫祚紀는 歷史記錄으로 合理性이 짙고 歷史적인 人物로, 百濟國의 始發이 대체로 B.C 1세기의 일이라 하였다.

溫祚의 代에 이미 北은 禮成江 東은 春川을 境界로 삼고 南으로는 稷山과 溫陽을(그리고 어찌면 禮山과 燕岐도) 掌握하여 이미 城邑國家의 단계를 넘어서서 領域國家로 成熟되었을 것이다.<sup>12)</sup> 이 禮山地方은 先史時代부터 青銅器, 鐵器時代를 거치면서 韓半島內에서의 重要な 地點임을 알 수 있으며, 百濟의 初期부터 領域에 屬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車嶺山脈의 北西部地域은 百濟의 漢城時代(B.C. 18~475)에는 中部地域에 해당 되었을 것이나, 熊津時代(475~538), 泗沘時代(538~660)에는 高句麗와 國境을 接하는 北部 혹은 北西方에 位置하였다고 할 수 있다.

熊津時代의 漢江流域의 상실은 國家的인 큰 손실이었으며 王權의 쇠약은 貴族들의 반란을 야기시켰다. 解氏, 眞氏等 漢城時代의 貴族勢力은 그 勢力을 잃고 새로운 地方勢力들이 中央政治 무대에 등장하고 있다고 보는 見解가 있다.<sup>13)</sup>

이 北部地域이 高句麗와 國境地域으로 南遷以後에는 貴族勢力의 軍事的인 根據地임을 살펴 봄으로써 이 一帶가 百濟時代에서 가장 重要的 佛敎文化의 一部를 이룩할 수 있었던 背景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熊津時代 三斤王 二年 봄 佐平 解仇와 恩率 燕信이 大豆城에 據하여 반란을 일으켰는데 이 大豆城이 湯井城(溫陽)보다 北쪽인 牙山地域(陰峰面 水漢山城)일 가능성이 있으며 漢城時代의 漢江以北 北部의 勢力家 解氏가 文周王때에는 自己세력의 民戶를 이곳으로 옮기어 근거지로 하였다고 한다.<sup>14)</sup>

大豆城을 근거지로 한 解仇의 반란을 진압한 德率 眞老는 解仇를 대신하여 兵官佐平이 되고 內外兵馬事를 장악했으며 眞氏들의 軍事的인 근거지로 燕岐地方 等を 들고 있으나,<sup>15)</sup> 百濟初期 漢山城<sup>16)</sup> (혹은 漢城)이 高句麗의 漢江占領以後에도 記錄이 계속되고 있어 옛 漢城의 民戶를 옮기어 살게 한 곳도 漢城으로 부르는 것이라 본다면 이 옮기어진 漢城이 眞氏와 關係가 있을

9) 金載元·尹武炳, 《韓國西海島嶼》1973, pp.11~28

10) 池健吉, 〈禮山東西里 石棺墓出土 青銅一括遺物〉《百濟研究》第9輯, 1978, pp.151~181

韓炳三·李健茂, 《南城里石棺墓報告書》, 1977

11) 李丙燾, 《韓國史》古代編 1959, p.350, 百濟의 建國年代를 古尙王 27, 29年(260~262)으로 보고 있다.

12) 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上)〉《韓國學報》第三輯, 1976, pp.132~133

13) 盧重國, 〈百濟王室의 南遷과 支配勢力의 變遷〉《韓國史論》4, 1978, pp.70~78

14) 李基白, 〈熊津時代 百濟貴族勢力〉《百濟研究》第9輯, 1979, pp.10~15

15) 註 13) 前揭論文 pp.101~102

16) 李丙燾, 《國譯三國史記》1983, p.399. 註 4에서 漢江·竹嶺·鳥嶺에서 車嶺山脈 일대가 濟麗의 國境線으로 漢山城

可能性이 있고 稷山이 慰禮城이었다는 오랜 전승과 大豆山城(牙山?)에 인접한 百濟의 一線 軍事기지로 천도후 漢城이라고 보았다. 또한 湯井城(溫陽)은 佐平 解仇와 더불어 大豆城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恩率 燕信 等 燕氏의 근거지로 보았다.<sup>17)</sup>

遷都以後 高句麗와의 敵對的인 關係에서 國境地域을 軍事的인 背景으로 가진 貴族勢力들의 本據地가 이 北部一帶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地域的인 상황은 新羅와 同盟하여 漢江流域을 차지할 때까지 계속되었을 것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以後에도 新羅 眞興王의 배신으로 漢江流域을 빼앗기고 이곳은 新羅와의 國境線으로 敵對國의 對象만 교체되었을 뿐이었다. 이러한 重要性和 中國大陸文化의 對外交通路의 中心이고 關門으로 中國 南北朝時代 佛教文化의 傳來와 渡來人의 定着 等으로 重要 地點이었다.<sup>18)</sup>

忠南 德山 修德寺가 北部地域임을 알 수 있으니, 「釋 惠現 百濟人 小出家 初住北部 修德寺 有衆則請 無則持誦……俗齡五十八 卽 貞觀之初」<sup>19)</sup> 이라 하여, 惠現이 처음에 北部 修德寺에서 강론하고 58세에 입적하였고 이로 미루어 보아 570年代에는 北部로 부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東城王때에 南齊에 朝貢케한 內法佐平 沙若思가 西海中에서 高句麗兵을 만나 돌아온 사실에서 百濟가 高句麗 國境에 인접한 北部地域을 大陸과의 朝貢에 利用했을 可能性이 있다.<sup>20)</sup>

이는 高句麗와 陸地의 國境線 뿐만 아니라 海上活動에 따른 重要한 地域이 北部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例라 하겠으며 熊津, 泗沘에서 中國 大陸에 이르는 經路는 2個의 路를 생각할 수 있다. 泰安半島에 이르는 禮山, 瑞山, 泰安, 安興과 牙山灣을 利用한 禮山, 合德 漢津里나 白石浦, 溫陽, 天安, 全義, 熊津으로 連結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後者의 陸路는 훨씬 짧은 路가 되겠다. 百濟가 羅唐聯合軍에 의해 멸망되고 다시 復興運動을 일으킨 重要한 거점인 大興 任存山城도<sup>21)</sup> 禮山에 있었음은, 牙山灣으로 흘러들어 가는 沙若思의 上流에 位置하여 海上을 利用한 日本軍과 高句麗의 도움도 생각해 볼 수 있다.<sup>22)</sup> 이러한 條件들로 이 地域이 百濟의 重要한 軍事地域임을 보여주고 있다.

#### IV. 百濟武寧·聖王代의 佛教

百濟에 佛教가 들어온 것은 公式的 記錄으로 枕流王元年(384) 9월에 百濟 使臣이 中國 晉에

이 百濟의 所有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17) 註 14) 前掲論文 p.16

18) 黃壽永, 〈泰安磨崖三尊佛像〉《韓國佛像의 研究》, 1973, p.96

19) 《三國遺事》卷五 惠現求靜 貞觀은 627~648이니 初期라면 약 630年으로 잡고 58세에 입적하였으므로 570年代(威德王代)라고 보인다.

北部라는 名稱은 三國史記 東城王 十二年 秋七月 「徵北部人年十五歲已上 築沙峴, 耳山二城」에서도 보이나 山城의 위치를 알 수 없다.

20) 《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第四 東城王六年「……秋七月 遣內法佐平 沙若思如南齊朝貢 若思至西海中 遇高句麗兵不進」

21) 沈正輔, 〈百濟復興軍의 主要據點에 關한 研究〉《百濟研究》第14輯, 1983, pp.147~148, 任存城이 禮山郡 大興이라는 點에서 學者들의 意見이 일치하고 있다.

22) 金在鵬, 〈全義周留城考證〉《燕岐地區古蹟研究調查報告書》, 1981, p.40

朝貢하고 胡僧 摩羅難陀가 晉에서 들어오고 王이 그를 맞이하여 宮內에 두고 禮敬하니 佛法이 이로 부터 비롯하였다. 다음해 2월에 漢山에 佛寺를 세우고 十人의 僧侶를 두었다.<sup>23)</sup>

百濟는 近肖古王(346~375)때에 益山에 남아 있던 馬韓勢力을 併呑하고 帶方의 故地를 占領, 高句麗의 平壤城을 공격하여 故國原王을 敗死시키고 最大의 領域을<sup>24)</sup> 확보하여 軍事, 政治的인 面에서 팽창되고 있을 때에 佛敎를 받아 들였으나 以後 高句麗의 平壤천도와 南進政策에 밀려 蓋鹵王이 漢城을 빼앗기고 文周王(475)때에 熊津으로 南遷하였다. 이러한 壓力으로 역시 高句麗와의 敵對關係가 계속되는 新羅와 和親<sup>25)</sup>으로 結속하는 한편 對外的으로는 中國 南朝의 齊<sup>26)</sup>에 使臣을 보내 朝貢하고 北朝 北魏의 侵入을 格퇴하는<sup>27)</sup> 等 外交政策을 쓰고 있다. 이보다 앞서 百濟가 中國에 使臣을 보낸 것은 近肖古王 27, 28年(372~3)의 일로, 2회에 걸쳐 晉에 朝貢하였다는 記錄은 晉書에도 27年 6월에 封册 內容이 있어 記錄이 一致하고 있다.<sup>28)</sup>

三國史記 卷二十四 近仇首王 五年 春三月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이라 하여 379년에 使臣을 東晉에 보내어 朝貢케 하였는데 그 使臣이 海上에서 폭풍을 만나 도달하지 못하고 돌아왔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中國 梁書에는 太元年間中(376~383)에 노예를 바친 記錄이 보인다.<sup>29)</sup> 이로 미루어 보아 近肖古王때에 2회에 걸친 東晉에의 朝貢도 海上을 利用했음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이 時期에 高句麗가 百濟의 北邊을 침범하고 近肖古王은 3萬 軍士로 平壤城을 공격하는등 中國과 通交는 陸路로 利用할 수 없음은 自明하다고 하겠다. 百濟의 佛敎 傳播經路도 晉으로 부터 海路를 利用했을 可能性이 매우 높다고 하겠으며 海岸이 어느 곳인지 알 수 없으나 그 例의 하나가 修德寺라고 전한다.<sup>30)</sup> 佛敎關係記事는 三國遺事卷三……難陀關濟……又阿莘王即位 大元十七年 二月 下敎 崇信佛法求福……阿莘王(392)때에 下敎하여 佛法을 받고 崇尚하여 福을 求하라는 記錄以後에는 熊津遷都後인 武寧王(501~523)때까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소략한 記錄으로 百濟의 佛敎傳來時期를 의심하는 見解가 있다.

즉 日本에 傳한 때는 552年(欽明天皇3年)이며 當時의 百濟와 日本의 關係로 보아 佛敎傳來時期가 6세기초기에 傳해진 것이라 한다.<sup>31)</sup> 이는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된다. 佛敎傳來以來 中國大陸의 南·北朝와 朝貢, 封册, 請求, 許可等 武寧王때 까지만 하여도 約 40餘回의 文物 交流

23) 《三國史記》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枕流王, 「遣使入晉朝貢, 九月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24) 註 11) 前掲論文 p. 262

25) 《三國史記》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十五年 春三月 「王遣使新羅請婚, 羅王以伊浚比智女歸之」.

26) 《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八年 三月 「遣使南齊朝貢」

27) 《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 第四 東城王 十年 「魏遣兵來伐, 爲我所敗」

《南齊書》東南夷傳 百濟條 永明八年 「魏虜又發騎數十萬 攻百濟入其界 牟大遣將沙法名, 贊首流, 解禮昆, 木干那 率衆襲擊虜軍 大破之」

28) 《三國史記》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 近肖古王, 二十七年 春正月 「遣使入晉朝貢」, 二十八年 春二月 「遣使入晉朝貢」

29) 《梁書》諸夷傳 「百濟者……晉太元中(376~395) 王須……竝遣獻生口」, 王須 即 近仇首王(375~383)이 사신을 보내어 生口(奴隸)를 바치고 있다.

30) 文化財管理局, 〈修德寺〉《韓國의 古建築》, 1979, p. 97

枕流王 2年 百濟의 佛敎를 傳한 자리라고 하나 믿을 만한 資料가 없다고 하였음.

31) 末松保和, 《新羅史의 諸問題》, 1954, p. 209

가 있었으며 中國의 佛敎의 隆盛<sup>32)</sup>함에서 보더라도 佛敎에 對한 交流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熊津遷都 初期의 王權의 쇠약과 混亂에 따른 貴族勢力의 발호를 제어하고 安定的 바탕을 잡은 것은 東城王(479~500)과 武寧王 때이다.

觀世音應驗記에 依하면 發正은 武寧王때인 梁나라 天監年間(502~519)에 中國에 건너가 30餘年을 修學하고 돌아 왔으며 觀音信仰을 實踐하였다.<sup>33)</sup> 이와 같이 武寧王대에 벌써 中國 南朝 梁나라에서 佛法을 修道하였음은 社會·文化的인 바탕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주는 資料이며, 1971년에 發掘된 武寧王陵의 出土遺物은 佛敎的인 要素가 基本이 되고 있다. 蓮花文으로 장식된 塼室, 王·王妃의 冠飾, 頭枕과 足座의 蓮花文은 佛菩薩의 光背火焰文과 直結되고 있다. 王妃冠飾의 경우는 特히 佛敎的 性格이 뚜렷하며 그것이 六朝의 佛敎美術에서 직접 받아들인 것이겠으나 百濟王室의 佛敎崇尚의 一面을 잘 보여 주고 있다.<sup>34)</sup> 聖王(523~553)代의 佛敎는 가장 發展하였던 時代中의 하나로 잘 알려진 事實이다. 熊津時代 都城內에 王 5年(大通元年 527)에 梁武帝를 爲하여 절을 創建하고 이름을 大通寺라 하였다.<sup>35)</sup> 大通이란 梁武帝의 年號로서 이는 兩國間의 밀접한 관계를 말하며 中國佛敎文化의 交流뿐만 아니라 聖王 9年(531)에 百濟僧 謙益이 멀리 佛敎의 本山인 印度로 부터 修學하고 印度僧 倍達多三藏과 함께 귀국할 때 梵本五部律을 갖고 왔으며 國王이 예의를 갖추고 마중 나갈 정도로 政策的인 환영을 받고 興輪寺에 머물러 國內 高僧 二十八人和 더불어 72卷을 번역하였다.<sup>36)</sup> 멀리 印度에서 梵語를 직접 공부하고 원전을 가져왔으며 國內에서 번역에 종사할 수 있는 高僧이 20餘名이나 있었다함은 이 時代의 佛敎에 對한 열의와 水準을 짐작할 수 있겠다. 이는 安定期에 들어간 百濟 王權의 신장과 發展을 爲한 것으로 道德的인 戒律修行<sup>37)</sup>을 通하여 統合의 現實的인 慾求에 의한 國家的인 차원의 佛敎思想이 있었음을 보여 준다고 하겠다.

한편 日本의 경우는 「日本書紀」와 「元興寺緣起」에 의하면 百濟에서 日本에 佛敎를 傳해 주었으며, 이때에 聖王은 太子像, 說佛起書, 釋迦佛金銅像, 幡蓋, 經論等を 보냈다.<sup>38)</sup> 中國 梁 大通6年(534)과 大同7年(541)에 여러번 使臣을 보내 邦물을 바쳐왔고<sup>39)</sup> 아울러 涅槃經義 毛詩博士, 工匠, 畫師等を 請하여 이에 모두 주도록 했다.<sup>40)</sup>

이렇게 印度나 中國에서 배워온 佛敎思想의 믿음과 蓄積은 聖王 16年(538) 泗泚로 再遷都하여 都邑經營에 多事한 中에서도 日本에의 佛敎思想의 傳授는 百濟化로 소화된 個性있는 佛敎

32) 張文鎬, 〈中國中世美術〉《東洋美術史》, 1970, p. 58

北魏 興光元年~太和元年(454~477)

平城의 사원 100개사 승려 2,000여인

지방사원 합해서 6,478개사 승려 7258인

33) 金煥泰, 〈百濟의 觀音思想〉《馬韓百濟文化》第3輯, 1979, pp. 17~18

34) 文化財管理局, 《武寧王陵》發掘報告書 1973, pp. 27~28

35) 《三國遺事》卷三「原宗興法……又於大通元年 丁未爲梁帝 創寺仍名 大通寺(熊州即公州也)」

36) 安啓賢, 〈百濟佛敎의 關한 諸問題〉《百濟研究》第8輯 1977, pp. 41~43

37) 上揭論文

38) 金東華, 〈百濟佛敎의 日本傳授〉《百濟研究》第2輯, 1971, pp. 27~51

39) 《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 聖王十二年 春三月「遣使入梁朝貢」, 「十九年 王遣使入梁朝貢」

40) 《三國史記》卷第二十六 百濟本紀 聖王二十九年「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涅槃等經義 併工匠畫師等從之」

思想과 더불어 佛教文物의 傳來는 계속되어 聖王 以後에도 律師, 禪師 等 승려와 造佛, 造寺工, 瓦博士, 鑪盤博士 等 技術者를 보내어 주고 있다.

## V. 北西部地域의 百濟佛像

이 地域에서 出土된 것과 遺存하고 있는 百濟佛像을 代表할 수 있는 遺物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이 百濟四面石佛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 1. 瑞山普願寺址出土 百濟金銅如來立像<sup>41)</sup>

金銅佛像으로 直立正面如來像인데 머리에는 圓隆의 素髮이 솟아 있고, 寶顏은 長方形, 눈을 거의 감은 듯하며, 코와 입은 磨損되어 확실하지 않으나 웃음을 띄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가슴에는 속내의가 보이고 衣文은 가슴에서 U字形으로 겹쳐 흐르고 끝단은 Ω字形으로 처리되었으며, 印契는 三國時代 通印이다.

### 2. 普願寺址出土 金銅一光一尊佛像片<sup>42)</sup>

右脇侍와 光背一部가 남아있다. 結髮의 머는 곧게서고 얼굴은 細長하나 살찐 편이고 兩手는 寶珠를 잡고 있으며 天衣는 날카롭게 교차하였으나 天衣의 단은 떨어지지 않고 수하되어 약간 벌어져 있다. 臺座는 闊瓣蓮華文으로 곧추 서 있다. 一部 남아있는 光背內區의 蓮華唐草文은 줄기가 힘차게 떨어 있다. 細部에 치중하지 않은 百濟樣式에서 보이는 연약한 맛이 없고, 高句麗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百濟佛로 北魏樣式을 띤 東魏初期樣式을 反映한 樣式이라 하겠다.

### 3. 南宮鍊氏 所藏 金銅如來坐像<sup>43)</sup>

素髮에 작고 둥근 肉髻를 갖고 머리는 앞으로 숙이고 입은 다물어 근엄한 표정이며 가슴 앞에 모은 禪定人을 하고 있다. 法衣는 通肩으로 가슴에 속내의가 보이며 양무릎위에 걸쳐 長方形臺座위에 흘러내린 裳懸坐의 옷 끝판은 겹쳐진 Ω字形으로 形式化되었다. 出土地는 확실하지 않으나 한반도의 中西部地域이라고 傳해진다.

### 4. 泰安磨崖三尊佛<sup>44)</sup>(圖面 6-(1), 圖版 5)

東面한 큰 암석의 좌우에 如來立像과 중앙에 보살입상이 조각되었다. 北의 如來像은 素髮에 肉髻는 작고 寶顏은 살이 찌고 눈은 가늘게 뜨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 어깨는 벌어져 당당한 체구이다. 法衣는 두꺼운 通肩으로 가슴에 속내의와 띠 매듭이 보이고 옷주름은 U字形으로 平行되고 印契는 三國時代 通印이다. 南쪽 如來像도 거의 같은 形式이다. 가운데 菩薩像은 如來像보다 작으며 머리에는 높은 冠을 쓰고 좌우에는 수식이 길게 되었다. 두손은 가슴앞에 들어 올려서 寶珠를 잡고 있다. 三尊은 모두 무늬가 없는 寶珠形 光背를 갖고 있으며 발밑에는 伏蓮臺

41) 李殷昌, <瑞山龍賢里出土百濟金銅如來立像考>《百濟文化》第三輯, 1969, pp. 25~40

42) 姜友邦, <金銅日月飾三山冠思惟像攷(下)>《美術資料》第三十一號, 1982, p. 3

43) ① 金元龍, 《韓國美術史》1973 p. 110, 百濟佛

② 姜友邦, <金銅日月飾三山冠思惟像攷(上)>《美術資料》第三十號, 1982, p. 30, 高句麗佛로 分類.

44) 黃壽永, <泰安의 磨崖三尊像>《韓國佛像의 研究》, 1973, pp. 87~116



座가 조각되었고 전체적 규모는 2.4~2.5m에 달하는 巨作으로 마멸이 심한 편이다.

5. 瑞山磨崖三尊佛像<sup>45)</sup>(圖面 6-(2), 圖版 4-(2), 6)

直立正面의 本尊은 머리에 寶珠形 光背가 있고 中心의 單瓣蓮花文 주변에는 불꽃무늬가 있으며 素髮한 머리에 작은 肉髻가 있다. 寶顏은 살이 지고 얼굴은 미소를 띠고 눈은 크게 떴다. 法衣는 두꺼워 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슴에는 속내의와 띠 매듭이 선명하며 어깨는 넓어 당당하고 옷주름은 앞에서 U字形으로 단층을 이루고 옷단은 Ω字形의 주름이 있다. 손은 通印이며 발목은 드러내고 큼직한 伏蓮單瓣蓮華文 臺座가 있다. 右脇侍菩薩은 머리에 冠을 쓰고 寶顏은 살이 오르고 만면에 미소를 띠고 있다. 목에는 목걸이를 했고 두손은 가슴에 들어 올려 寶珠를 잡고 있다. 상체는 裸形, 하체의 法衣는 발등까지 내려졌다. 역시 蓮華臺座가 있다. 左脇侍에 半跏思惟像을 配置하였다. 머리는 높은 冠을 쓰고 얼굴에는 미소를 풍기고 왼발은 내리고 오른발을 왼쪽 무릎에 얹은 전형적인 半跏像으로 三尊 모두 寶珠形光背를 갖추고 본존의 전체높이가 2.8m에 달하는 百濟時代 조각 研究에 매우 중요한 作品이다.

6. 禮山四面石佛

彫刻樣式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이들 佛像에 對해서는 造成時期를 알려주는 확실한 文獻이나 金石文 또는 口傳을 찾을 수 없다. 앞에서 본 佛像들의 各部分別로 樣式的 특징과 共通點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瑞山 普願寺址 出土金銅如來立像은 원래 獨尊佛 그대로인지 확실하지 않으며 磨崖三尊佛과 禮山 四面石佛은 禮拜對象으로 差異가 있을 것이며, 三尊佛도 泰安佛은 가운데에 보살상이 있고 瑞山佛은 半跏思惟像이 있는 一般的인 形式을 벗어난 三尊佛이라 하겠으나 四面佛은 各面의 方位에 따른 獨尊佛의 性格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인다.

如來像의 佛頭의 肉髻는 모두 素髮이며 佛頭에 비해 작고 寶顏은 長方形의 長편으로 눈은 뜨고 입은 약간 벌려 웃음을 띠고 있어 양볼은 팽창되어 살이 찢 듯 통통한 편이다. 法衣는 通肩으로 옷은 두껍고 옷주름은 깊게 線刻되어 몸체의 윤곽을 볼 수 없으며 속내의 表現과 허리띠 매듭에 共通點이 있다. 法衣의 옷주름은 가슴 아래에서 U字形으로 平行단을 이루고 옷끝단의 Ω字形의 처리와 臺座 역시 單瓣蓮華文이나 裳懸座의 古式이다. 寶珠形 蓮華文 光背와 힘찬 불꽃무늬도 同一系統이라 하겠다. 손의 모양은 三國時代의 通印인 施無畏與願印으로 各部分別 친연성이 매우 깊은 四面石佛은 瑞山, 泰安磨崖佛像과 거의 같은 系統의 彫刻이라 할 수 있겠다.

## Ⅵ. 三國時代 및 統一時代의 四面(方)佛像

四方佛이란 名稱은 佛敎經典中 金光明經, 阿彌陀經, 觀佛三昧經, 大日經 등에서 內容을 볼 수 있으며, 四面에 如來를 새긴 반듯한 큰 돌 또는 四方 즉 東·西·南·北 方位에 따라 西方淨土

45) 上揭論文, pp. 111~116

에 君臨하는 信仰에 의해서 佛像을 彫刻하기 始作하였으며 現在까지 塔·浮屠 등을 除外한 四方佛은 아래와 같다.

### 1. 慶北 聞慶郡 四佛山 四方如來佛<sup>46)</sup>

우리는 일찍부터 三國遺事에 四方佛에 關한 內容이 알려져 왔으나 이 記錄의 造成年代 문제에 대하여 疑心이 疑心이 되어왔다. 大乘寺 四方如來라고도 하며 산정에 方柱形의 各面에 모두 佛像一軀씩이 조각되었으며, 方位는 正確히 東·西·南·北을 가르키고 있다. 磨滅이 甚하여 輪廓만 남았으며 세부는 알 수 없으나 모두 如來像으로 推定되었으며 東·西 兩面은 坐像, 南·北 兩面은 立像이었다. 東面의 坐像이 상태가 좋아서 肉髻가 있는 頭部가 뚜렷하고 右側귀가 길게 늘어져 있다. 眞平王 9年(587)은 甲申年이 아니고 丁未年이며 甲申年이라면 王 46年(624)이 되나 여하튼 彫像의 年代를 올려 볼 수 있을지 疑心이다.

### 2. 慶北 榮州 石浦里 四面石佛<sup>47)</sup>

岩面 四面佛 南面에는 三尊像, 다른 3面에는 獨尊像을 陽刻하였다. 西面은 結跏趺坐한 如來의 趺座와 臺座의 蓮瓣이 약간 남았고 東面의 1像은 頭部와 身部를 區別할 수 있을 뿐이다.

三尊佛像은 全面의 彫刻이 심하나 整齊된 容姿를 알아 볼 수 있다. 本尊은 通肩 結跏趺坐한 坐像으로 頭部는 거의 圓刻에 가깝다. 머리는 削髮하였고 肉髻는 매우 크다. 顔面은 比較的 긴 편이며 口에는 미소가 있는 듯 마는 듯하다. 목에는 三道가 있으며 兩손은 通印인 듯하다. 무릎 밑은 埋沒되고 光背는 寶珠形으로 雄健한 불꽃무늬이고 法衣는 通肩으로 가슴에는 裙衣의 帶紐가 보인다. 左右脇侍菩薩은 冠을 쓰고 얼굴은 길고 풍만한 편이며 兩손은 胸에 모아 合掌을 했고 두꺼운 天衣가 어깨부터 兩팔을 걸쳐 가슴아래서 U字形으로 내려졌고 身部에 비해 큰 머리나 좁은 어깨에서 古拙한 風을 느낄 수 있다. 三尊佛像의 造成年代는 7세기 이하로 떨어뜨릴 수 없으리라 생각된다.

### 3. 慶州 神印寺 四方佛<sup>48)</sup>

塔谷磨崖佛로 알려진 거대한 바위가 네모꼴의 돌기둥으로 우뚝 솟아 있는데 各面에는 32軀의 佛·菩薩像 기타 彫刻들이 浮彫로 새겨져 彫刻群을 이루고 있다. 東面은 바위 3개로 구성, 三尊으로 된 本尊과 주위 6구의 飛天들이 날고, 공양을 올리는 스님이 묘사되어 있다. 三尊佛坐像은 正面으로 앉고 좌우 협시보살은 부처님을 向하고 있다. 머리의 육계는 얇고 얼굴은 둥글고 눈은 가늘며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이다. 옷은 通肩이며, 兩손은 배 부근에서 맞잡은 듯 하지만 옷 속에 가리워져 있다. 光背는 頭光 안에 16葉의 複瓣연꽃무늬와 주위 36줄의 光明線 左右脇侍菩薩의 얼굴은 側面觀에 西域的이고 이국적인 모습으로 右脇侍도 대개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

南面은 바위를 덮었던 佛殿의 正面으로 생각되는 곳이다. 앞쪽에는 石塔과 石燈의 일부가

46) 秦弘燮, 〈四佛山 四佛岩과 妙寂庵 磨崖如來坐像〉《考古美術》第7卷 9號, 1966

47) 秦弘燮, 〈榮州石浦里四面石佛〉《考古美術》第1卷 1號, 1960

48)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起源과 神印寺의 四方佛〉《韓國史研究》18, 1977, pp. 49~75

남아있으며 三尊佛과 스님상이 있다. 本尊像은 正面으로, 좌우의 협시보살은 본존으로 몸을 틀고 있다. 머리는 素髮, 육계는 아담하고 얼굴은 東面과 흡사하다. 신체, 의습, 옷주름 등도 비슷하다.

西面은 4面中 가장 적은 면적이다. 本尊佛은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한분의 佛像으로 머리는 다른 본존과 비슷한 素髮로 肉髻가 낮고 두광은 寶珠形으로 안에는 연꽃 무에는, 밖에는 불꽃무늬로 되었고 다른 본존과 비슷하다.

北面은 가장 높고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좌우 두 개의 탑이 새겨져 있으며 木塔으로 생각된다. 오른쪽 9層塔의 基壇은 2層, 지붕 끝마다 풍경을 달고 相輪部는 露盤, 仰花 등이 갖추어 졌고 왼쪽 7層塔은 작게 表現되었으며 두 탑밑에는 獅子로 보이는 怪獸가 한 마리씩 매우 動的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相輪部 사이에 主尊이 새겨져 있는데 東쪽 본존과 비슷하다.

이 불상은 백제의 蓮洞里불상(630~640)과 신라의 비암사 碑像(670년경)들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보아 좋지 않을까 싶다.

#### 4. 忠南 燕岐 石像<sup>49)</sup>

燕岐郡一帶 碑巖寺를 中心으로 隣近의 寺庵과 民家 등에 있는 합계 7個의 石像은 同代 同系의 作品으로 地域的인 親緣을 갖고 造成된 희귀한 四面石像 내지 碑像系 造形으로 注目을 모으고 특히 7個石中 4個石에 銘文이 記刻되어 있어 學術的 價値와 注目을 받게 되었다.

##### (1) 癸酉銘全氏阿彌陀佛三尊石像

暗赤褐色의 軟質 蠟石製인 작은 柱形石材 四面에 佛像과 銘文을 彫刻한 碑像形式의 石像이다. 前面에는 거의 全面을 메운 큰 寶珠形 光背 밑에 三尊을 비롯하여 仁王像, 飛天像, 獅子像, 化佛等 각종 장식을 조각하였고 밑에 銘文이 陰刻되었다. 兩側面에는 蓮莖이 달린 蓮花座위의 樂天像이 上下에 2軀씩 있고 밑에는 앞을 向한 용머리가 있으며 뒷면은 4段으로 나누어 各段에 5軀씩의 小坐佛이 있다. 앞면의 三尊像은 얼굴, 몸체, 의문, 대좌등이 癸酉銘三尊千佛碑像과 비슷하다. 寶珠形 光背는 二重으로 되었으며 化佛과 불꽃무늬를 조각하여 매우 화려하며 頭光 안에는 複瓣蓮花文, 法衣는 通肩, 가슴아래서 두텁게 U字形의 옷주름이 잡혀있다. 발은 結跏趺坐하고 長方形臺座에 옷주름이 넘쳐흐르는 裳懸座이다. 印契는 파손 되었으나 三國時代 通印이다.

##### (2) 癸酉銘三尊千佛碑像

韓國에서 발견된 最初의 千佛碑像으로 蓋石과 臺座가 一部 破損되었으나 形態를 알아 볼 수 있다. 앞면에 半圓形으로 튀어나온 蓮花臺座 위에 三尊像을 陽刻하고 그 左右에 4行씩 碑文이 있다. 本尊은 坐像이고 菩薩은 立像이다. 本尊은 寶珠形, 보살은 圓形의 頭光이 있고 法衣는 通肩이고 寶顏은 마멸되었다. 印契는 通印이고 本尊은 장방형의 臺座위에 結跏趺坐하고 있다. 三尊佛 위에는 段을 이루어 소형의 佛像을 조각, 千佛을 나타내었다. 碑文은 干支부터 始作하

49) 註 44) 前掲論文, pp. 135~176

여 造成發願文, 關係人名 등이 記錄되어 여러가지 重要的 內容을 갖고 있으며 그 內容의 結果 造成年代를 新羅 文武王 13年(673)으로 推定하고 있다.

### (3) 蓮花寺 戊寅銘 四面石像

長方形 佛石 上·下에는 突起가 만들어지고 위는 좁고 밑은 넓은 사다리꼴이다. 앞면에 五尊과 뒷면에 三尊을 조각하고 양측면에 銘文과 如來像, 그리고 卍字形난간문을 새겼다. 中央本尊은 如來坐像으로 方形臺坐에 結跏趺坐하고 通肩衣로 印契는 不明하며 裳懸座의 樣式이고 圓形蓮花文의 頭光이 있다. 좌우에는 羅漢像과 菩薩立像이 있다. 三尊像은 本尊이 半跏思惟像 方形座의 위에 있으며, 머리위에 2줄의 蓮花文 頭光이 있고 좌우의 보살상은 향로를 들고 꿇어 앉아 本尊을 向하고 있다. 銘文이 不明하나 앞면은 阿彌陀本尊과 뒷면은 彌勒보살로 推定되며 戊寅年은 新羅 文武王 18年(678)으로 比定되는 半跏像의 年代를 알 수 있는 作品이다.

### (4) 己丑銘阿彌陀佛及諸佛菩薩石像

彫刻은 오직 앞면에만 있고 뒷면에는 四行의 楷書銘이 있다. 阿彌陀經에 보이는 極樂淨土의 장면을 조각시킨 것 같다. 밑부분은 單瓣蓮花座가 둘러지고 난간과 步階가 만들어졌고 그위에 蓮池가 있다. 如來本尊이 蓮座위에 結跏趺坐하고 肉髻가 있고 通肩衣이며 右手는 不明, 左手는 배아래에 올려졌다. 가슴에는 卍字, 頭光은 圓形으로 蓮花文과 花文連珠帶가 둘러지고 좌, 우 보살은 圓形蓮花頭光과 寶冠, 영락의 장엄구가 조각되었다. 보살 사이에 羅漢, 仁王像等 本尊위에는 化佛五軀가 半圓을 그리며 蓮花座에 앉고 그 위에 坐佛七軀를 配置하였다. 癸酉銘佛보다는 樣式上에서 떨어지며 銘文역시 己丑은 新羅 神文王 9年(689)으로 推定된다.

### (5) 慶州 掘佛寺址 四面石佛<sup>50)</sup>

#### 西面：阿彌陀如來三尊立像

本尊佛의 體軀는 石柱에 높은 浮彫로 陽刻되고 頭部는 別個의 石材로 丸彫하여 목위에 올려놓았다. 오른 손은 施無畏印의 位置, 왼 손은 앞 허리 부분, 法衣는 通肩, 허리 및 옷 주름은 여러 겹의 U字形으로 흘러 내렸다. 양 협시보살은 別個의 돌에 丸彫되어 뒷면까지도 衣褶表現이 된 完全한 立體彫刻으로 기대어 세웠다. 머리에는 左側보살은 三面寶冠과 小形化佛이 있는 觀音보살로, 의습은 本尊佛보다는 세련되었다. 右側 勢至보살의 의습은 옷주름이 자연스럽고 律動感있게 처리되었다.

#### 南面：如來三尊立像

主佛은 釋迦로 推定되며 右 협시보살은 파손되었다. 如來像은 頭部와 손은 결실되었으나 印契는 施無畏印으로 推測되며 法衣는 通肩으로 U字形의 주름을 만들었고 官能的인 表現이다. 左 협시보살상은 頭部와 體軀의 균형이 잘 잡혀 있다. 머리는 높게 들어 올려지고 寶冠帶가 둘러졌다. 오른 손은 施無畏印, 왼 손은 허리 옆으로 내려져 있다. 天衣는 가슴과 허리, 무릎위로 걸쳐져 오른 팔위에서 다시 내려지고 다른 한 끝은 왼 손으로 잡고 있다. 裙衣는 허리에서 양

50) 金理那, 〈慶州掘佛寺址의 四面石佛에 대하여〉《震檀學報》39, 1975, pp. 45~68

다리 위에 U字形으로 대칭되어 발목까지 내려오고 있다.

東面：藥師如來坐像

結跏趺坐의 如來像은 왼손의 藥盒으로 보아 東方 瑠璃光淨土이며 佛頭는 꽤 높고 얼굴은 약간 앞으로 숙이고 눈은 치켜 올려지고, 입술은 두툼한 것이 앞으로 내밀어 표정은 침울한 감을 준다. 頭光과 身光이 있으며, 頭光은 寶珠形의 불꽃무늬가 있다.

北面：菩薩立像 11面 6臂觀音菩薩立像(線刻)

左側 浮彫의 彌勒菩薩은 오른 손은 어깨 쪽으로 올리고 왼 손은 옆으로 내려서 天衣를 걸치고 있는 자세는 南面像과 비슷하다. 머리는 틀어 올려서 묶어 양쪽으로 갈라 놓았다. 線刻의 菩薩像은 唯一한 11面 6臂의 觀音像으로 本面의 頭部頂上에 작은 面이 배열되고 本面의 두귀 옆에 菩薩頭가 한면씩 보여 11面이 形成된다. 팔의 위치는 어깨 위에 쳐 올려진 1雙, 가슴 앞 1雙, 허리 옆의 밑으로 1雙 모두 6個의 팔을 具備하고 위로 올려진 손에는 무엇인가 圓形의 持物을 들고 내려진 양팔위에는 天衣가 걸쳤고 圓形線의 頭光, 가슴의 흉식, 양무릎에 裙衣가 U字形으로 늘어졌다.

四面石佛群은 統一新羅時代의 8세기의 前半期에서도 中葉에 가까운 彫刻양식으로 推定되었다.

(6) 慶州 南山 七佛庵 四方佛<sup>51)</sup>

원래 七佛庵으로 알려진 여기에는 磨崖三尊과 그 앞의 石柱에 새긴 四方佛, 수십미터 높은 절벽에 새긴 觀音菩薩像 등이 있으며, 西面의 三尊佛이 中央佛이자 本尊佛의 性格을 띤 五方佛의 配置形式을 갖고 있는 것으로 四方佛의 方位개념에서 이를 統制하는 기능을 나타내는 五方佛의 性格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方位佛像이다.

① 本尊三尊佛像

本尊의 머리의 육계는 둥글면서 높직해 마치 상투를 엮어 놓은 것 같고 素髮이다. 눈은 약간 뜨고 입은 부드럽다. 어깨는 넓고 강건해서 석굴암 본존과 친연성이 있다. 印契는 降魔觸地印이며 結跏趺坐하였으며 法衣는 右肩偏袒, 옷주름은 곡선적인 계단식 주름이다. 臺座는 覆蓮과 仰蓮의 2重 單瓣 7葉의 蓮花座이다. 寶珠形 頭光은 무늬가 없다. 왼쪽 협시보살상은 머리에 三面寶冠를 쓰고 얼굴은 풍만하고 天衣자락은 어깨에서 두팔을 걸쳐 흘렀고 허리띠가 보이며 바지는 U字形 옷주름이 물결처럼 내려왔다. 오른쪽 협시보살은 왼쪽과 흡사하다.

② 四方佛像

가. 東方佛

들어가는 입구 쪽이며 가장 큼직하다. 蓮花臺座 위에 결가부좌한 本尊佛처럼 당당한 佛像이다. 머리는 素髮에 肉髻가 뚜렷하며 얼굴은 풍만하고 힘있는 인상이다. 어깨도 넓고 당당하며 印契는 왼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오른 손은 가슴 위로 올렸다. 法衣는 通肩衣로 가슴에 속내의

51) 文明大, 〈新羅四方佛의 展開와 七佛庵佛像彫刻의 研究〉《美術資料》第二十七號, 1980, pp. 1~23

가 보이고 허리띠 매듭의 일부도 보인다. 覆仰蓮의 蓮花臺座이고 寶珠形 頭光背에는 무늬가 없다.

#### 나. 南方佛

東方佛과 거의 비슷한 편이다. 세부적인 차이는 얼굴이 길면서 건강하게 보이고 승각기를 묶은 허리띠 매듭이 완연하다. 다리 아래쪽으로 흘러내린 옷자락이 裳懸座, 옷 주름이 중첩되었다.

#### 다. 西方佛

東方佛과 비슷한 모습이다. 다만 얼굴이 부드럽고 단아하게 처리되어 여성적인 면을 보여주며 신체가 부드럽다.

#### 라. 北方佛

南方佛과 비슷한 佛像이다.

七佛庵의 佛像彫刻은 圖象學的으로 四方佛의 形式을 갖고 있으며 五方佛的 配置構造와 함께 佛菩薩像은 8세기의 2/4 분기의 다른 新羅彫刻과 비슷한 形式과 樣式을 表現하고 있다.

#### (7) 禮山 百濟 四面石佛

앞서 내용 설명을 하였다.

이상과 같이 현재 알려진 四面佛像에 對하여 文獻과 調査에 依한 研究業積의 內容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四面佛의 原流는 佛教經典의 敎理를 바탕으로 中國에서 發生하여 三國時代의 佛教文化 受容의 추세에 따라 받아들여진 것으로서, 塔의 境遇에서는 十方世界 전체를 佛國土로 보는 世界觀을 表明하고 護國, 禳災, 祈福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華嚴經에 입각 各方位에 따른 東方 觀音, 西方 彌陀, 南方 地藏, 北方 釋迦로 되었으나 新羅人들은 特히 藥師如來 信仰이 朝野에 크게 勢力을 얻어 4佛이 釋迦, 彌陀, 彌勒, 藥師로 新羅人 自身の 發明·發見으로 되었다 한다.<sup>52)</sup> 또한 神印寺의 例에서 볼 수 있는 神印宗은 觀佛三昧經, 金光明經 등을 主經典으로 한 때이므로 神印宗의 方佛 變相圖라고 보고 있으며 그 理由로 四方佛인 方位佛을 收容한 것은 四方으로 擴張하는 領土概念과 多樣한 부처님 造成으로 새로운 佛教의 展開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sup>53)</sup>

中國에서의 四方佛의 發生은 北魏, 東魏, 西魏代부터 北周(556~581)代까지 계속되었으며, 現存하는 遺物로는 北魏 孝昌 4年(527)의 李氏四面佛, 東魏 孝靜帝 天平 2年(535)銘 七層六列佛龕, 西魏 文帝 大統17年(551)銘 四面佛像 등이 알려져 있으며, 日本에 있어서 四佛例는 日本 奈良에 있는 法隆寺 金堂의 711年頃에 完成되었다고 생각하는 壁畫에 近年에 와서는 西方阿彌陀淨土, 東方 藥師淨土, 南方 釋迦淨土, 北方 彌勒淨土가 通說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四佛의 배치가 730年에 建立된 日本 興福寺의 五重塔의 塔基에 安置되었다는 記錄과 이는 원래 596年에 完成된 元興寺(法興寺, 飛鳥寺)의 五重塔을 모방했다는 說이<sup>54)</sup>있다. 이절은 日本의 最初

52) 李箕永, <象徴的 表現을 通해본 7~8世紀 新羅 및 日本의 佛國土 思想> 《韓日古代文化交渉史研究》1974, pp. 134~141

53) 註 48) 前掲論文 pp. 73~75

54) 註 50) 前掲論文 p. 49와 이 글 註 14) 參考

의 本格 寺院으로 崇峻천황 5年(592)에 불당과 회랑을 기공하고, 推古 4年(596)에 塔이 준공되고, 同 14年(606)에 丈六釋迦像이 安置되었다. 가람배치는 高句麗의 清岩里廢寺址를 모방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sup>55)</sup> 그러나 百濟의 佛教文物 傳來는 威德王 때인 577, 584, 588年 계속되어 造佛工, 造寺工, 瓦博士 鑪盤博士 등 기술자들을 파견하여 寺院을 건축하고 불상을 제작하게 하였다는<sup>56)</sup> 記錄을 보아 百濟의 樣式이라고 推定되며, 재검토 하여 보아야 될 것이다.

四方佛像의 受容原因은 佛教의 經典中 金光明經, 觀佛三昧經 등의 說을 基本으로 하고 있으나 四佛山, 四方佛의 境遇 蓮花經을 암송, 燕岐碑像에서는 亡國의 國王과 大臣 그리고 父母와 百濟民의 讎을 위로 하기 爲한 造成內容 등을 볼 수 있다. 護國的인 面이 強調되었을 뿐 만 아니라.<sup>57)</sup> 四佛山, 掘佛寺, 燕岐 등은 王들과의 인연이 있으며, 眞平王(579~631)<sup>58)</sup>, 景德王<sup>59)</sup>(742~764)의 경우 직접 현장에서 敬禮하였다. 四佛山佛은 하늘에서 내려왔고, 掘佛寺佛은 땅 속에서 나왔다. 이는 아마 하늘과 땅을 상징하는 우리 固有의 信仰의 一部로써 地神과 天神에 一脈相通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부처님의 가호와 保護로 王權 수행에 직접적인 권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 될 수 있고 四方으로 온 누리에 떨어 나가는 힘을 갈구하는 方位概念의 표징이라 하겠다.

이들 四方佛이 發見된 地域은 忠南 禮山, 慶北 聞慶, 慶北 榮州, 忠南 燕岐, 慶北 것으로 慶州 地域을 除外한 地域은 百濟와 高句麗, 新羅의 國境線 地域으로 양국이 漢江流域으로 進出하고자 하는 전초기지의 跡目이다. 國家의 領土擴張 意圖와 같이 이는 부처님의 힘으로 떨어 나가는 方向을 暗示하고 있지 않은가 한다.

造成年代는 三國時代의 記錄에서 볼 수 있는 眞平王代인 6세기 말경에는 新羅地域인 四佛山 四方佛이 造成되었고<sup>60)</sup> 앞서 본 日本의 元興寺 關係記事에서도 6세기 말에는 傳達되고 있음을 보았다.

榮州 石浦里 四面石佛은 6세기 末期나 7세기 初期의 作品으로 判斷되고 있다.<sup>61)</sup> 神印寺 四方佛은 7세기 中期로 보고 있으나<sup>62)</sup> 彫刻手法과 樣式 등에서 치졸하고 정교하지 아니한 作品으로 또한 地域的인 面에서 7세기 末期로 보이며, 燕岐碑像보다 좀 떨어지는 時期라 推定된다. 統一直後에 百濟遺民에 의해서 造像된 碑岩寺系統의 四面佛들은 新羅 神文王代 製作으로 보

55) 秦弘燮譯 久野健等, <建築>《日本美術史》, 1978, p. 6

56) 註 38) 前掲論文 p. 38

57) 金文經, <三國·新羅時代의 佛教 信仰結社>《史學志》第10輯, 1976, p. 153~176

58) 《三國遺事》卷第四 塔像 四佛山條「竹嶺東百許里 有山屹然高岐 眞平王九年甲申 忽有一大石, 四面方丈 彫四方如來 皆以紅紗護之 自墜其山頂 王聞之 命駕瞻敬 遂創寺崑側 額曰 大乘寺 請比丘亡名誦蓮花者主寺」

59) 《三國遺事》卷第四 塔像 掘佛山條「又景德王遊幸栢栗寺 至山下聞地中有唱佛聲 命掘之 得大石 四面刻四方佛 因創寺以掘佛爲號」

60) ① 申濤植, <外交記事의 個別的 檢討>《三國史記研究》1981, p. 225, 表 47, 眞興王, 眞平王인 549~605年 사이에 覺德, 安弘, 智明, 圓光 등이 50年 사이에 中國의 梁·陳·隋로 求法차 다녀오고 있으므로, 四方佛에 대한 내용을 알고 충분히 제작할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② 秦弘燮, <異型石塔의 1基壇形式의 考察>《考古美術》138, 139號, 1978, p. 106

造成年代에 대하여는 確언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좀더 검토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 註48) p. 71, 8세기 이후

61) 註 47)과 同

62) 註 48) 前掲論文 p. 74

고 있다.<sup>63)</sup> 역시 統一後에 神印寺 四方佛과 景德王代에 掘佛寺 四方佛이 造成되고 이런 四方佛에서 五方佛의 性格으로 發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sup>64)</sup>

百濟에 있어서는 熊津遷都後 國力の 伸張을 爲한 모든 制度面에서 再整備 強化에 따른 새로운 王權 확대의 精神的인 支柱가 佛教였으며, 大衆化를 위한 佛教思想中에서도 戒律的 경향은 混亂에 빠졌던 國家 쇠신의 하나의 방편으로 大通寺나 定林寺의 創建, 그리고 日本으로의 佛教 文化의 傳達은 國際政治的인 百濟의 外交的인 面에서 고려 되었을 것이다.

國家의 造像活動과 地方 豪族들의 作業中의 하나가 北部地方을 中心한 貴族세력에 의해 6세기 중엽에 만들어진 것이 禮山四面佛이며 三國時代의 最初의 四方佛이라 하겠다.

## VII. 造成時期

百濟 佛教의 傳來는 枕流王 때인 384年이 公式記錄이며 이듬 해에 佛寺의 創建과 더불어 禮拜의 對象으로 佛像을 작은 金銅佛이나 石佛으로써 自體에서 제작하였거나 中國에서 수입하였을 가능성이 일반적으로 생각 될 수 있는 문제라고 하겠다. 造像記錄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므로 現在까지 出土된 百濟佛像 遺物에 대해서 살펴 봄으로써 알 수 있을 것이다. 三國時代에 中國의 南北朝에 의한 佛教와 佛像의 傳來는 各國에 알맞는 佛像을 製作하였을 것이며 中國自體內의 地域性, 政治, 社會, 文化的인 面에서 복잡성을 띄고 있으며 三國에서도 領域에 따라 多樣하게 造像되고 時代에 따라 形式의 변천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며<sup>65)</sup> 이는 學者에 따라 佛像의 製作國家를 달리 분류하는 의견이 있다. 여기서는 百濟佛像이라고 여겨지는 佛像들에 대한 樣式等 특징만을 비교하여 전체적인 基本 흐름을 보아 관련성을 찾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서울 岳岬 出土 金銅佛坐像은 5cm의 크기로 얼굴과 어깨는 앞으로 숙이고 두손을 가슴에 모아 禪定印에 結跏趺坐하고 法衣는 좌우 대칭으로 옷 주름선은 굵게 陰刻되었다. 地方的인 面을 보여 주는 中國 建武 4年銘(338) 金銅佛坐像과 비교되고 있으며 出土地가 漢江流域이라는 地域性은 高句麗와 百濟 또한 北方的이며 가장 오래된 佛像으로 中國의 수입품<sup>66)</sup> 등의 見解가 있는 5세기 作品으로 推定된다. 扶餘 新里出土 金銅佛坐像은 臺座나 法衣가 岳岬佛像과 相通되나, 얼굴은 둥글면서 살이 붙은 中國和平 5年(464) 金銅坐像과 친연성이 있어 6세기 초기에 속한다. 癸未銘 金銅三尊佛像, 金銅菩薩三尊立像, 定林寺址出土 滑石製三尊佛과 一光三尊佛像等은 얼굴은 입을 다물어 양쪽 뺨이 살이 쪼 보이고 양쪽으로 펼친 새 깃같은 옷자락, 光背는 寶珠形의 불꽃무늬로 소용돌이 치며, 光背나 臺座에 單瓣蓮花文이 보이고 法衣는 通肩으로 가슴에서 U字나 X字

63) 註 44) 前揭論文 p. 169

64) 註 51) 前揭論文 p. 21

65) 秦弘燮, 〈百濟美術文化와 新羅 高句麗美術文化와의 比較〉《百濟文化》第七·八合輯, 1975, p. 41

66) 金元龍, 〈羶島出土 金銅佛像〉《歷史教育》5집, 1961, p19~22 北中國 불상으로 추정. 黃壽永, 〈불상의 전래〉《불탑과 불상》1974, pp. 131~132. 中國의 것으로 바다를 건너백제 땅에까지 전달되었다 하였다.

文明大, 〈초기의 불상 조각〉《韓國彫刻史》1980, p. 104, 쌍영총의 주인공 같은 초상화에도 표현되고 있어 고구려제 작일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로 층단이 나 교차되고 있다. 印契는 三國時代 通印이며 좀더 형식적인 面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體軀는 부드럽게 조각되었으며 좌우에는 脇侍보살이나 합장 스님을 배치하였다. 中國 正光年間(520~24)의 三尊佛과 친연성을 갖고 있으나 완전한 百濟式으로 樣式的 展開가 된 時期라 하겠다. 獨尊佛로서 軍守里 蠟石製坐像과 南宮鍊氏의 金銅如來坐像, 普願寺址 金銅佛立像 등은 坐像의 形態나 禪定印, 方形臺坐의 初期의 樣式을 보이고 있으나 法衣의 線이 完연하고 옷의 끝단이 臺座위에서 Ω字形으로 주름이 잡히며 좌우 대칭을 이루고, 어깨선은 둥글면서 좁아졌다. 中國 大統年間(535~553), 保定年間(561~565)의 佛像과 比較될 수 있으며 百濟佛像製作의 完숙기 에 들어섰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 規模가 大型化한 造彫磨崖佛 系統의 佛像은 6세기 말기에서 7세기 초기에 나타났으며 이는 泰安, 瑞山磨崖佛로 웃음을 짓고 있는 매우 명랑하고 전연 가식이 없는 듯한 寶顏은 百濟佛의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다. 規模도 2~3m 에 達하는 자신감에 넘치는 作品으로 이 地域이 大陸과의 文物을 교섭할 수 있었던 곳으로 高句麗와의 國境地域인 北部로써 軍事力을 바탕으로 한 熊津, 泗泚時代의 貴族勢力의 根據地 등의 特殊性을 감안하여야 될 것이다. 以前 단계에서 거의 實物大로 彫刻된 것이 禮山 百濟四面石佛이라 볼 수 있는데, 이 四方佛은 材料上으로도 彫刻하기 용이한 蠟石系統으로 軍守里, 扶蘇山蠟石製 思惟像, 定林寺址 滑石製三尊佛 등과 相通되며 6세기 중기의 作品이다. 이 四面佛의 극도의 丸彫性, 法衣는 通肩의 굵은 陰刻線으로 몸체는 볼 수 있으며, 正面坐의 臺座는 半圓形 혹은 長方形으로 古式이며 頭光은 單瓣蓮花文, 印契는 通印, 가슴에 보이는 속내의와 허리며 매듭의 사실성, 素髮의 작은 肉髻 안으로 휘어진 丸彫의 光背는 화려하고도 정교한 불꽃무늬의 장식성 등은 東魏 前期의 天平 2年(537) 4年(535)銘의 石造佛像과 三尊佛에서 볼 수 있으며 頭部와 光背가 완전 분리된 丸彫性, 웃음을 머금은 얼굴 등도 비슷한 모습이다. 中國 梁의 四川 成都 萬佛寺 出土 石佛立像(537), 石佛坐像에서 같이 손목을 別造하여 구멍을 뚫어 結合하는 方法과 거의 같다고 하겠다. 또한 南向坐佛의 光背上端의 寶珠形 蓮花는 武寧王陵 冠飾의 蓮花와 同一系統의 도안이라고 하겠다. 6세기 중기에 있어서 百濟가 中國의 南北朝와의 外交的인 關係를 살펴보면 北朝인 北齊, 北周에 威德王<sup>67)</sup>이 사신을 보내고 冊封도 받았다. 王 14年, 24년에는 陳<sup>68)</sup>에도 사신을 보냈음은, 567~578年間 10餘年에 걸쳐 南北朝와 政治, 外交, 이외에 文化的인 접촉도 가졌으리라 보인다. 물론 이 보다 먼저 百濟軍의 華北進出說<sup>69)</sup>이 可能하다면 遼西와 華北과의 文化的인 相互關係는 절대적인 要素를 갖고 있었을 것이다. 高句麗가 中國北朝인 北魏와 긴밀한 外交關係를 맺고 있지만 南朝에 對해서도 朝貢을 通해 長壽王 51年(463)부터 文咨王(492~518), 安藏王(519~530), 安原王(531~544), 平原王(559~589)대에 이르는 약

67) 《三國史記》卷第二十七 百濟本紀 第五 威德王 十七年「高齊後主拜王 爲使持節侍中車騎大將軍帶方郡公百濟王」十八年「後主又以王 爲使持節都督東青州諸軍事東青州刺史」, 十九年「遣使入齊朝貢」二十四年 十一月「遣使入宇文周朝貢」, 二十五年「遣使入宇文周朝貢」

68) 同上 威德王 十四年 秋九月「遣使入陳朝貢」, 二十四年 秋七月「遣使入陳朝貢」, 三十一年, 三十三年「遣使入陳朝貢」, 三十六, 四十五年에는 隋에 사신을 보내 策봉을 받아 大陸의 政勢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69) 金庠基, <百濟의 遼西經路에 대하여>《白山學報》第3號, 1967, pp.133~142  
方善柱, <百濟軍의 華北進出과 그 背景>《白山學報》第11號, 1971, pp.1~30

120餘年間, 南朝 王朝의 변천에 따른 宋·南齊·梁·陳과 王의 冊封關係<sup>70)</sup>에서와 같이 南朝에 대해서도 外交的인 努力이 있었음을 볼 수 있다. 三國時代에 百濟의 佛教 美術彫刻品은 一般的으로 高句麗의 影響을 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中國 南北朝의 各王朝 自體內의 文化交流에 對해 논의 되고 있으며<sup>71)</sup> 韓半島內에서도 高句麗와 百濟는 中國의 南北朝와 상호 影響관계를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다. 이는 高句麗가 南朝의 影響을 받았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sup>72)</sup> 高句麗와 百濟가 政治 軍事的으로 敵對 乃至 斷絶된 狀態에서 百濟가 滅亡하고 있으며 또한 高句麗의 佛教는 550年代에 벌써 쇠퇴의 길을 걸어 惠亮이 陽原王 7年(551)에 新羅로 亡命하여, 理由를 政亂때문이라고 하였으나 그가 新羅에 돌아와 仁王護國에 基礎를 둔 百座講會를 하고 있음은 佛教에 대한 高句麗指導層의 지원이 없음을 보여 준 것이라고<sup>73)</sup> 하겠다. 이러한 政治的 狀況아래서 百濟의 佛教에 대한 高句麗의 影響을 고려해 보아야 될 것이다.

中國의 佛教文化의 影響을 하나의 모형으로 하여 高句麗나 百濟가 自體的인 새로운 彫刻品으로 發展시켜 왔을 것이며 一方的인 高句麗의 影響만을 強調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點에서도 禮山의 百濟 四面石佛은 泰安, 瑞山磨崖佛의 造成時期보다 앞선 實物大의 造像으로 武寧王, 이나 聖王時代를 벗어나지 않는 時期인 6세기 초기의 政治社會的 바탕위에 佛教的 분위기가 성숙하는 6세기 중기무렵에 造成되었다고 判斷된다.

## VIII. 結 言

이 四面佛像이 出土된 禮山郡 鳳山面은 西쪽으로 瑞山郡을 接하고 있으며 百濟의 最高의 佛像과 磨崖佛이 造像되었던 北西部地域으로 普願寺址 金銅如來立像, 金銅一光一尊佛像, 泰安·瑞山磨崖佛 등이 出土되고 現存하는 地域이다. 伽倻山 줄기로서 伽倻山은 統一新羅時期에는 五岳의 하나로 重要한 國家的 祭祀의 中祀<sup>74)</sup>에 편입되었던 代表的인 名山으로 百濟時代 創建으로 傳하는 修德寺가 있다.

예산은 百濟建國初期부터 領域에 포함되었던 大陸交通의 要地와 農産物이 풍부한 平野地帶로, 熊津·泗沘時代에는 百濟의 北部地域으로 高句麗의 南下勢力을 저지하는 전진기지로 國境線을 接한 國防力의 集中은 熊津時代의 中央貴族集團의 一部勢力인 解氏·燕氏 등의 軍事的인 基盤을 가진 根據地로 매우 重要하였음을 알 수 있다. 中國大陸의 南北朝와의 朝貢에 따라 先進文物이 受容되었던 길목임이 強調되고 있지만 通路로서의 一面보다는 政治的 經濟的인 바탕을 가진 中央貴族을 배출할 수 있었던 豪族을 中心으로 한 信徒나 貴族의 財力에 의해서 造像되었

70) 註 60) 申澄植 前掲文, pp. 215~218, 表 40, 41

71) 久野健, 〈百濟佛像의 服制와 그源流〉《百濟研究》第13輯, 1982, p. 235, 大衣 밑에 偏衫을 입은 것은 北魏에서 創案된 복제라고 推定되지만 南朝에서도 影響을 미친듯 하다고 하였다.

72) 註 42) ② 姜友邦 p. 20, 高句麗佛像彫刻에 있어서 北魏 내지 東魏의 影響만을 주장할 수 없으며 南朝의 樣式도 일단 고려해 볼만 하다고 하였다.

73) 李乃沃,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教〉《歷史學報》第九十九·百合輯, 1983, pp. 86~87

74) 李基白, 〈新羅五岳의 成立과 그意義〉《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p. 194~215

다고 보아야 될 것이다.

地理的 與件은 大陸과 海路의 요충으로 高句麗와 政治 軍事的인 面에서 百濟는 蓋鹵王때부터 陸路를 利用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매우 艱難한 海上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海上의 活動도 高句麗의 海軍의 방해를 받았지만 現在의 泰安半島의 작은 漁港보다는 內海와 같은 牙山灣을 利用하였을 可能性을 보여준다. 이는 漢江流域을 占領한 新羅의 大陸 朝貢 通路가 牙山灣入口인 南陽灣이<sup>57)</sup>였음에서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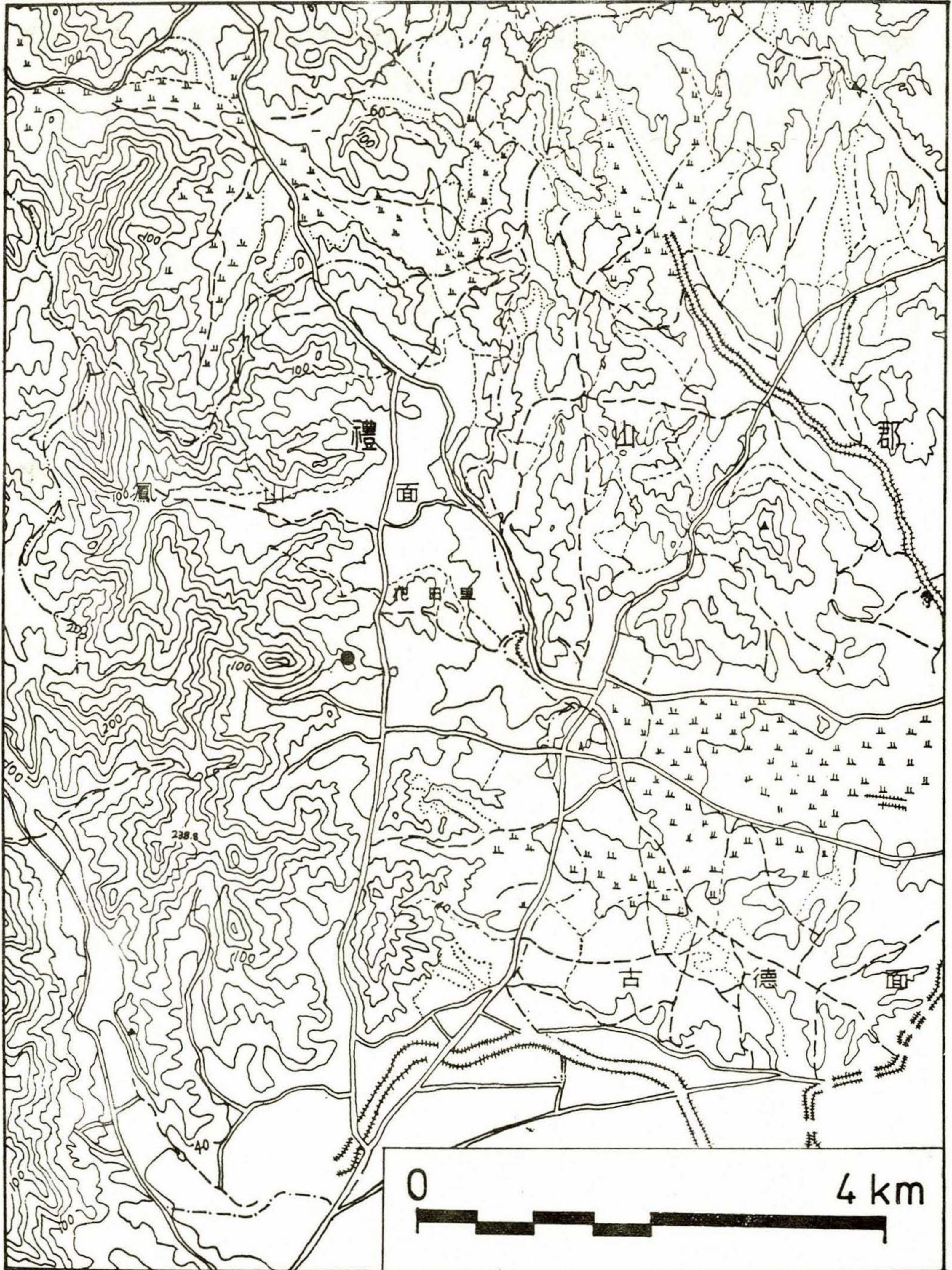
百濟가 高句麗의 漢江流域 占領으로 熊津 遷都後의 政治的 混亂을 克服하고 雄志를 펼 수 있는 바탕을 造成한 것은 東城王(475~500)時期라고 보이며 武寧王(501~23)때에는 佛敎의 發展을 도모한 時期라고 하겠다. 百濟僧 發正이 中國에서 30 餘年을 修學하고, 武寧王陵 塼室의 蓮花文과 王·王妃의 冠飾 頭枕·足座 등에서 보여 주는 佛敎的인 要素 등이 이를 證明하며 聖王(523~553)代에 大通寺, 定林寺의 創建과 謙益의 天竺國修學, 五部律의 번역등 國家的인 努力의 所産이며 日本으로 經書, 丈六佛像 등의 傳達은 百濟의 造像能力을 보여 주는 例라 하겠다.

北西部地域의 普願寺址 金銅如來立像은 6세기 中期의 百濟의 代表的 佛像이며 泰安·瑞山 磨崖佛 역시 7세기 初期의 最大의 巨作이다. 이 禮山百濟四面石佛은 東, 西, 南, 北의 方位에 의해 四方淨土에 君臨하는 불교신앙으로 어느곳에나 부처님이 계시다는 內容을 形象化하였으며 佛經典에 充實하기 보다는 그 時代, 社會가 要求하는 부처님을 모신, 護國과 祈福의 뜻을 담고 있다. 이 四面佛의 文獻記錄과 遺蹟調查內容에서 본 것중에, 가장 오래된 6세기 중기 작품으로 보이며, 聞慶 大乘寺 四佛山 四方佛, 榮州 石浦里 四方佛, 忠南 燕岐 石佛碑像, 慶州 神印寺 四方佛, 掘佛寺址 四面石佛, 南山 七佛庵 四方佛로 時代的으로 연계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들 遺蹟地위치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禮山, 聞慶, 榮州로 이어지는 東, 西方向으로 나타나 고 있어 高句麗와 대치된 百濟 新羅의 國境地帶로 造像年代도 6세기 중기에서 7세기 초기에 이르는 統一以前의 護國的인 領域의 확장이나 征服的인 의욕을 보이며 재래의 종교적인 地神과 天神의 加護를 佛陀로 代身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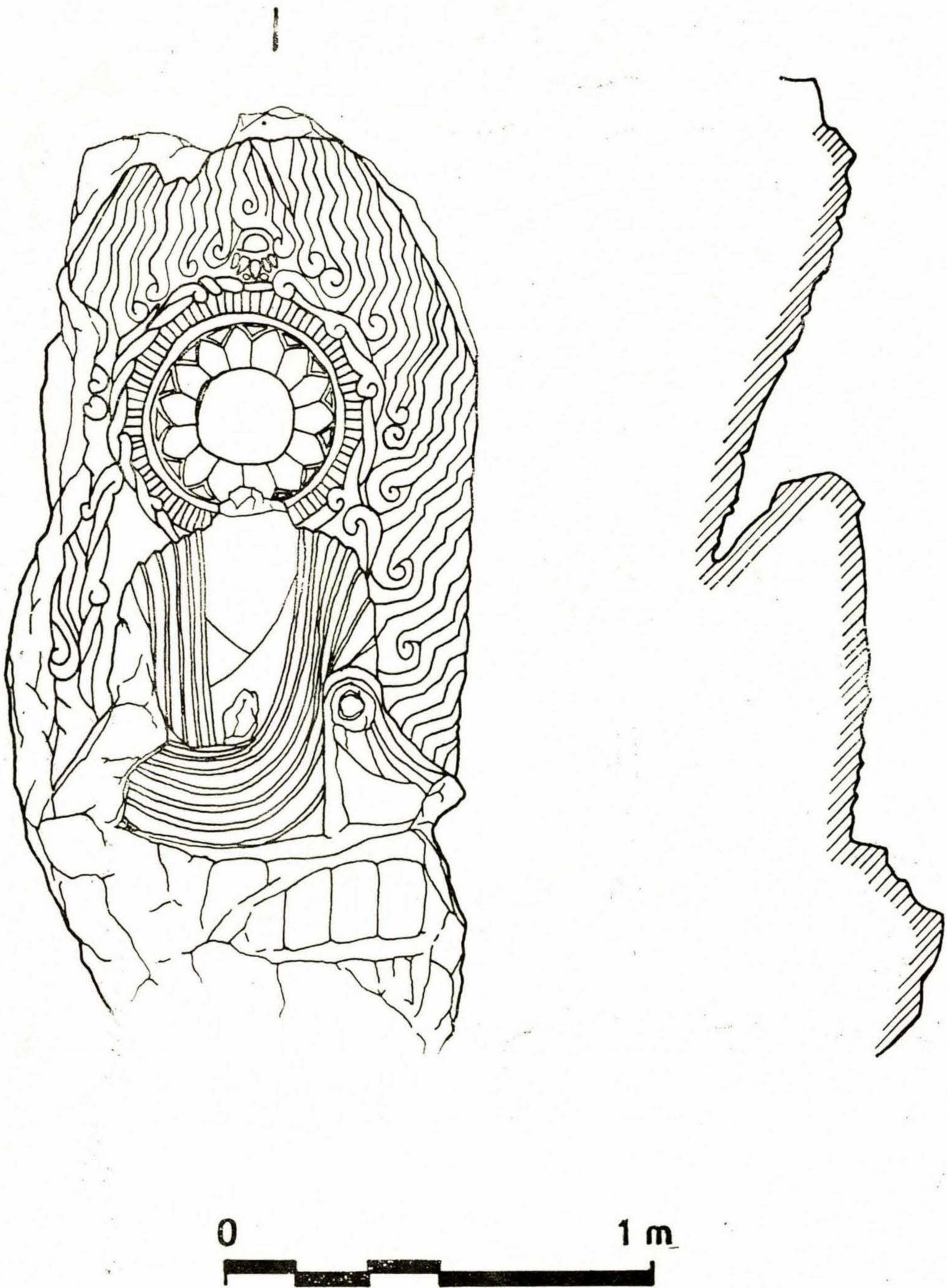
統一後의 燕岐 石佛碑像의 銘文과 같이 大王, 大妃, 祖上의 명복을 빌어 護國과 個人的 福을 구하고 있다. 磨崖佛의 形式을 取하고 있지만 彫刻은 極度の 丸彫性을 보여, 頭部는 完全히 光背와 分離하여 別途로 製作된 金屬佛처럼 되었고 전형적인 百濟蓮花文의 頭光, 華麗하고 정교한 불꽃무늬 光背, 通肩의 깊은 陰刻線 무늬, 印契의 通印, 가슴의 허리며 매듭等 中國의 東魏天平年間과 梁 四川成都出土 石佛立像等과 비교할 수 있겠다. 中國內의 南北朝樣式들의 相互間의 文化交流와 高句麗나 百濟의 對外關係에서 南北朝에 대한 同時 文物交流를 주의깊게 觀察하여야 되겠으며 一方的으로 南朝나 高句麗의 文化의 영향을 百濟가 받아들였음을 強調하는 點은 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三國時代에 相互政治的인 面에서 敵對的 상황을 벗어왔음도 주의 하여야 되겠다.

57) 李基白·李基東, <三國의 抗爭과 貴族國家의 變遷> 《韓國史講座 I》1983, p.183. 南陽灣에 黨項城을 쌓고 이를 거점으로 眞興王 25年(564)이래 南(陳)·北(北齊) 사신을 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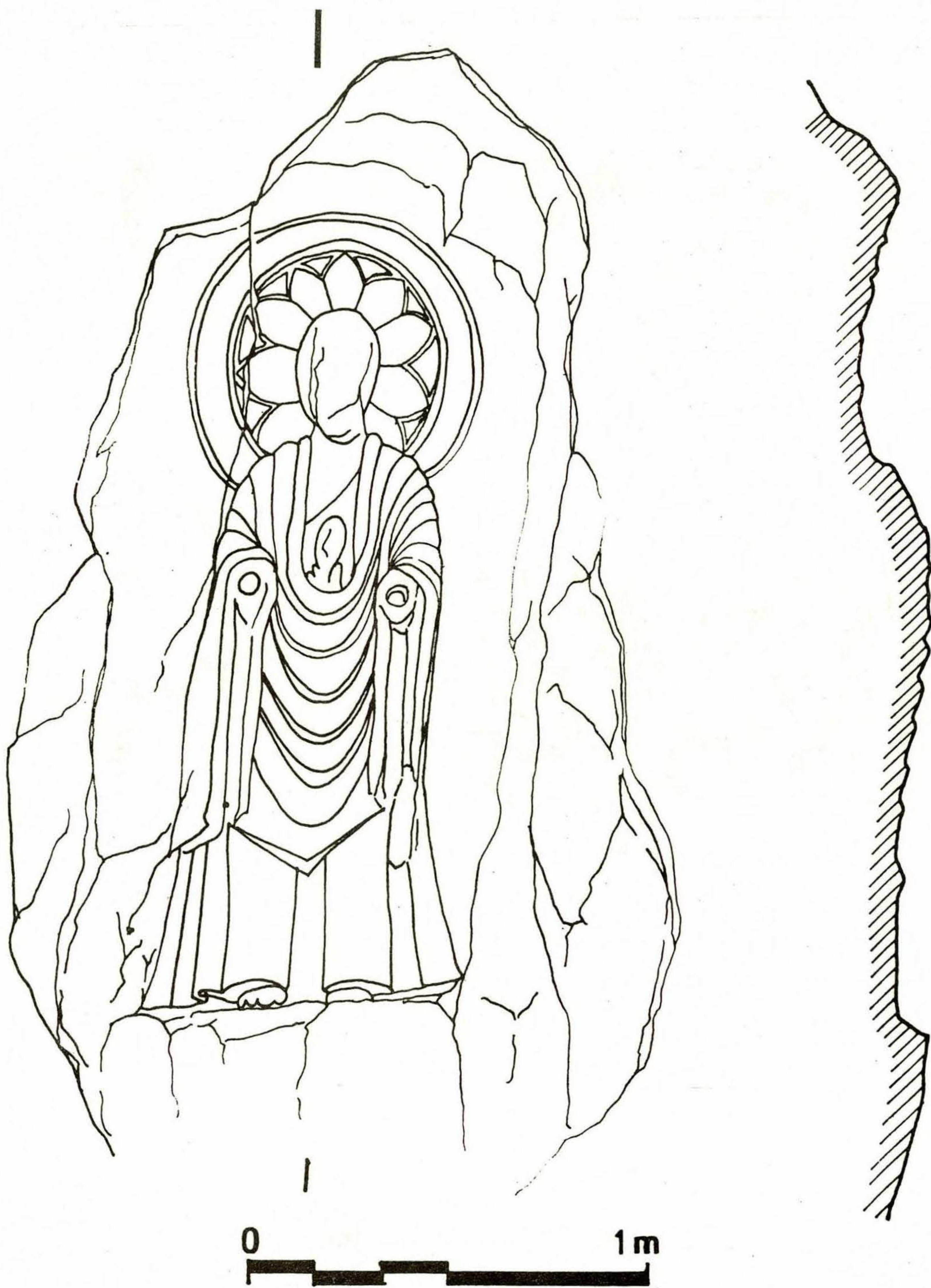
이 禮山四面石佛의 造成年代는 西紀 550年 前後이며, 소멸시기는 輿地圖書에 있는 靜修庵이라고 判斷되어 지금부터 적어도 約 150年前에는 廢庵되었을 것으로 推定된다. 이는 安東權氏 族譜에서 본 바 같이 佛像이 서 있는 곳에 接하여 幽宅을 마련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19세기 초기에는 石佛이 人위적으로 파손되었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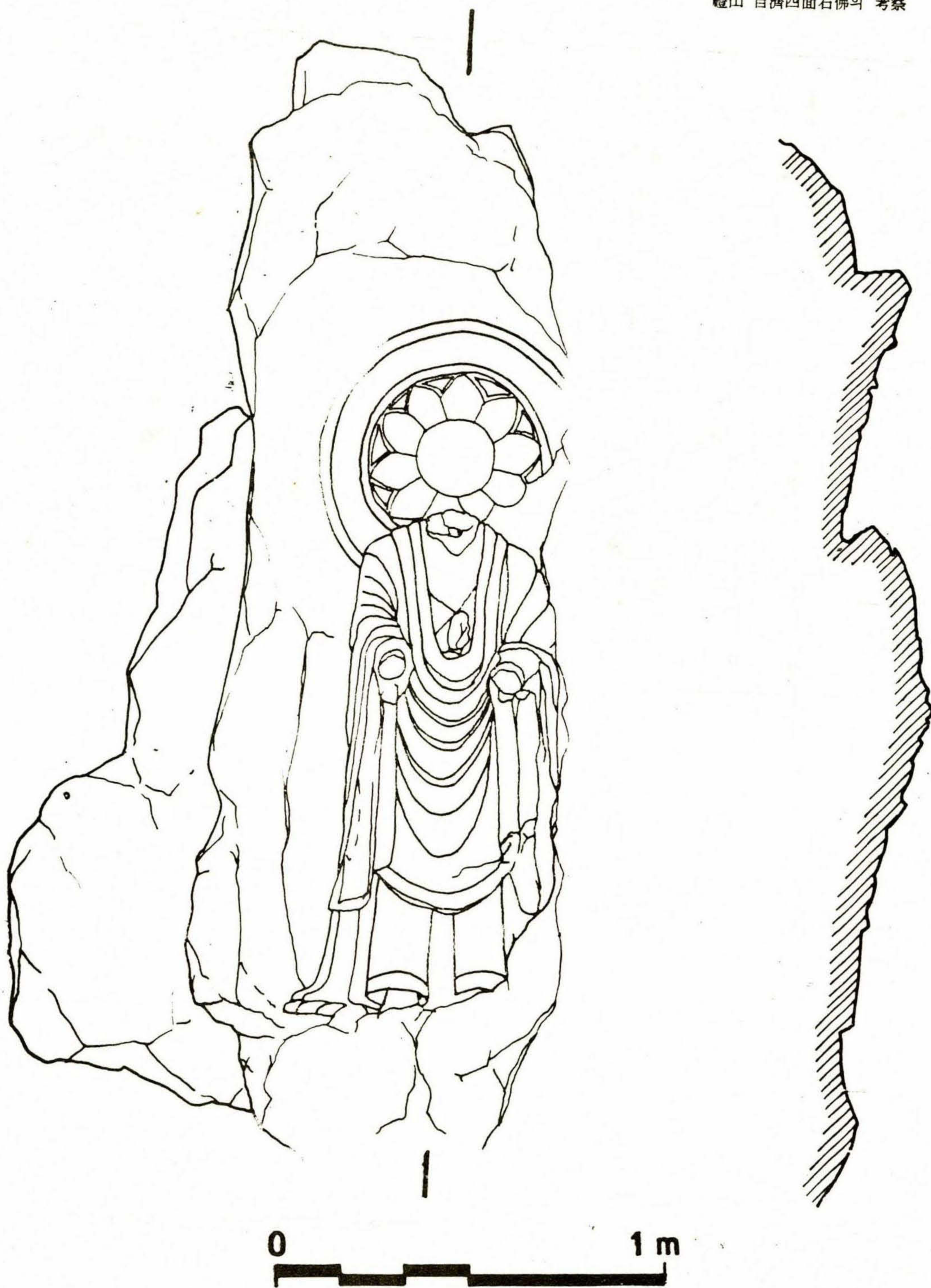
禮山 百濟四面石佛 位置圖



圖面 1. 坐佛像 (南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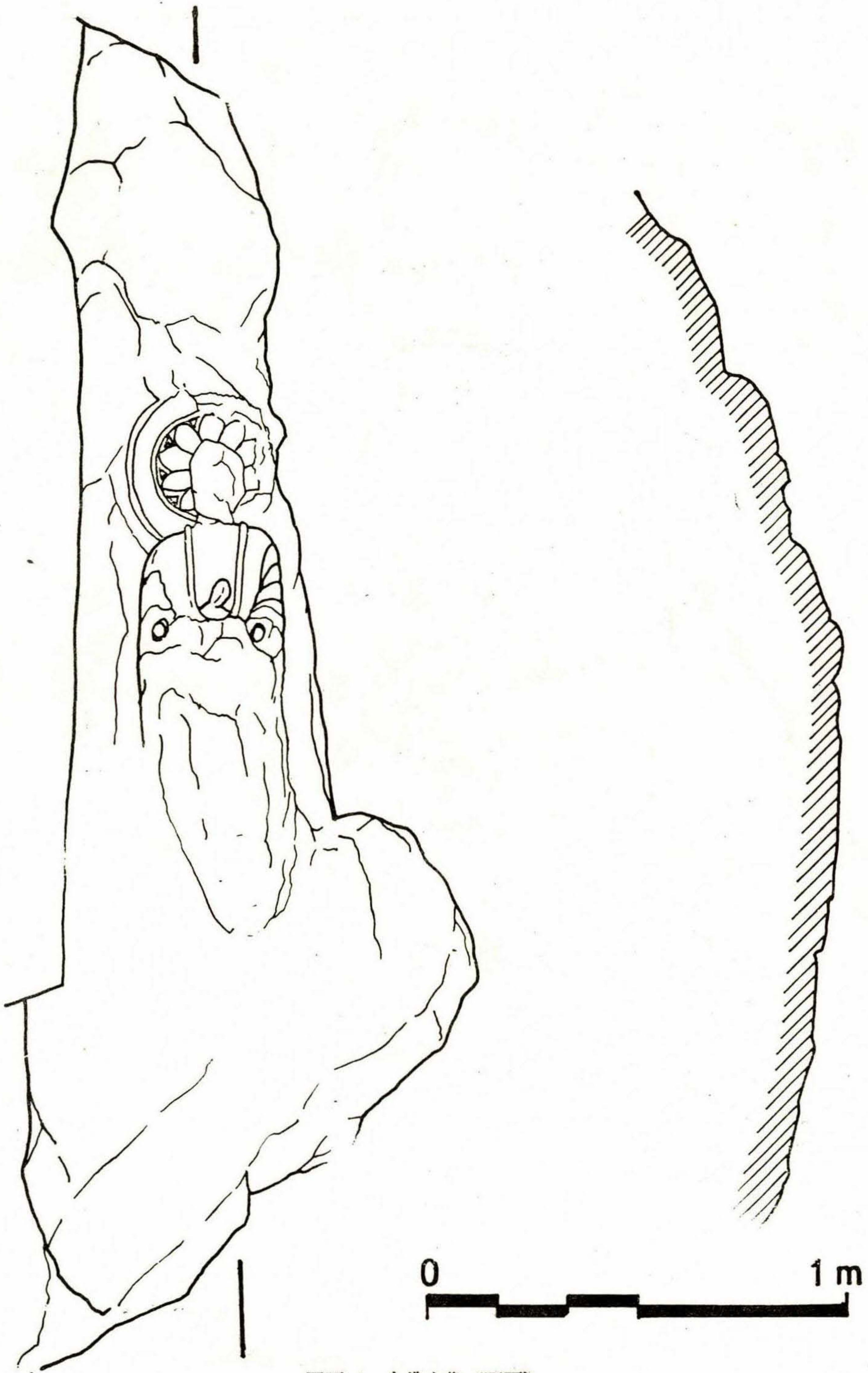


圖面 2. 立佛像 (北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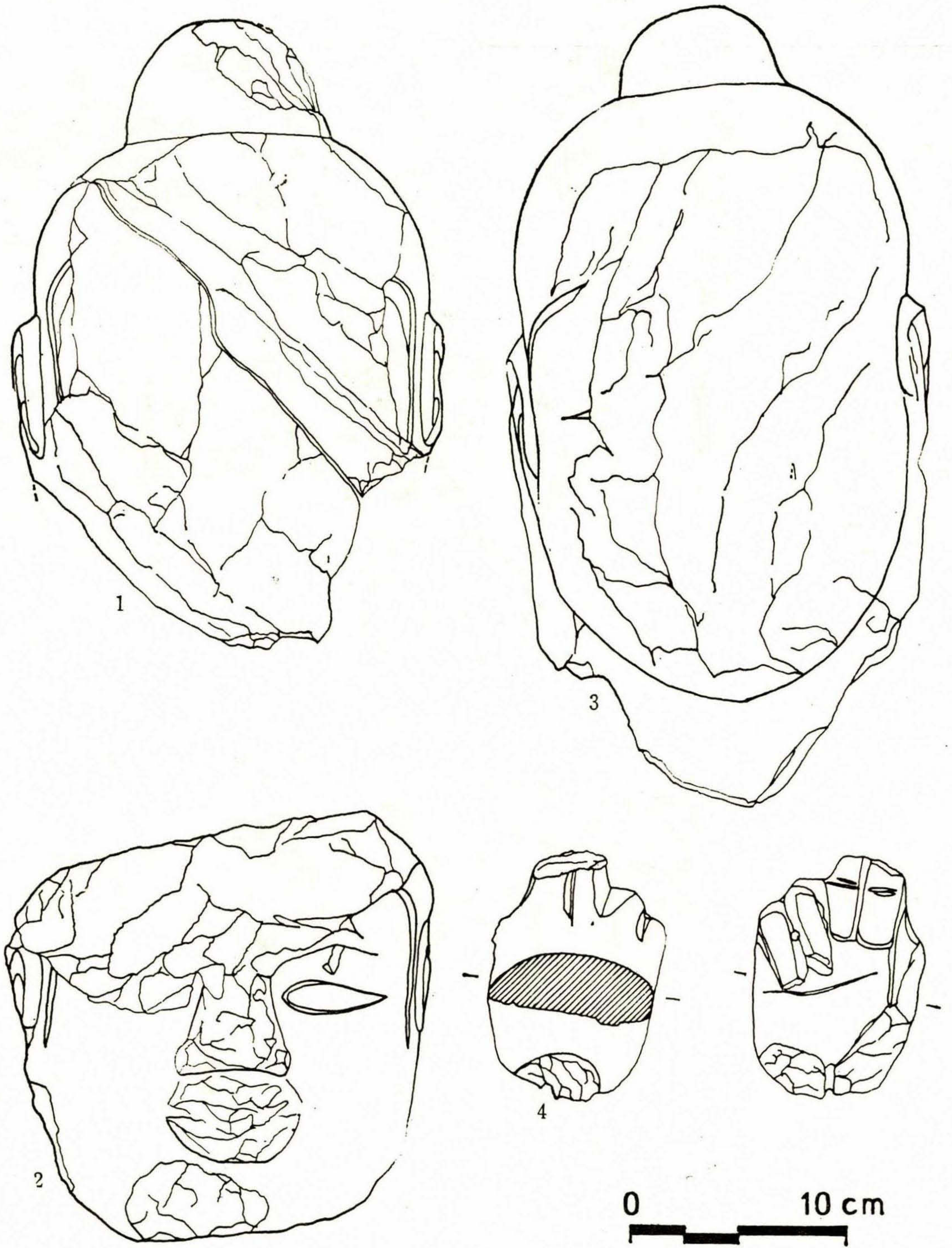


圖面 3. 立佛像 (東面)





圖面 4. 小佛立像 (西面)



圖面 5. 1.2. 佛頭, 3. 北面 佛頭, 4. 오른손 파편



面圖 6-(1). 泰安 磨崖 三尊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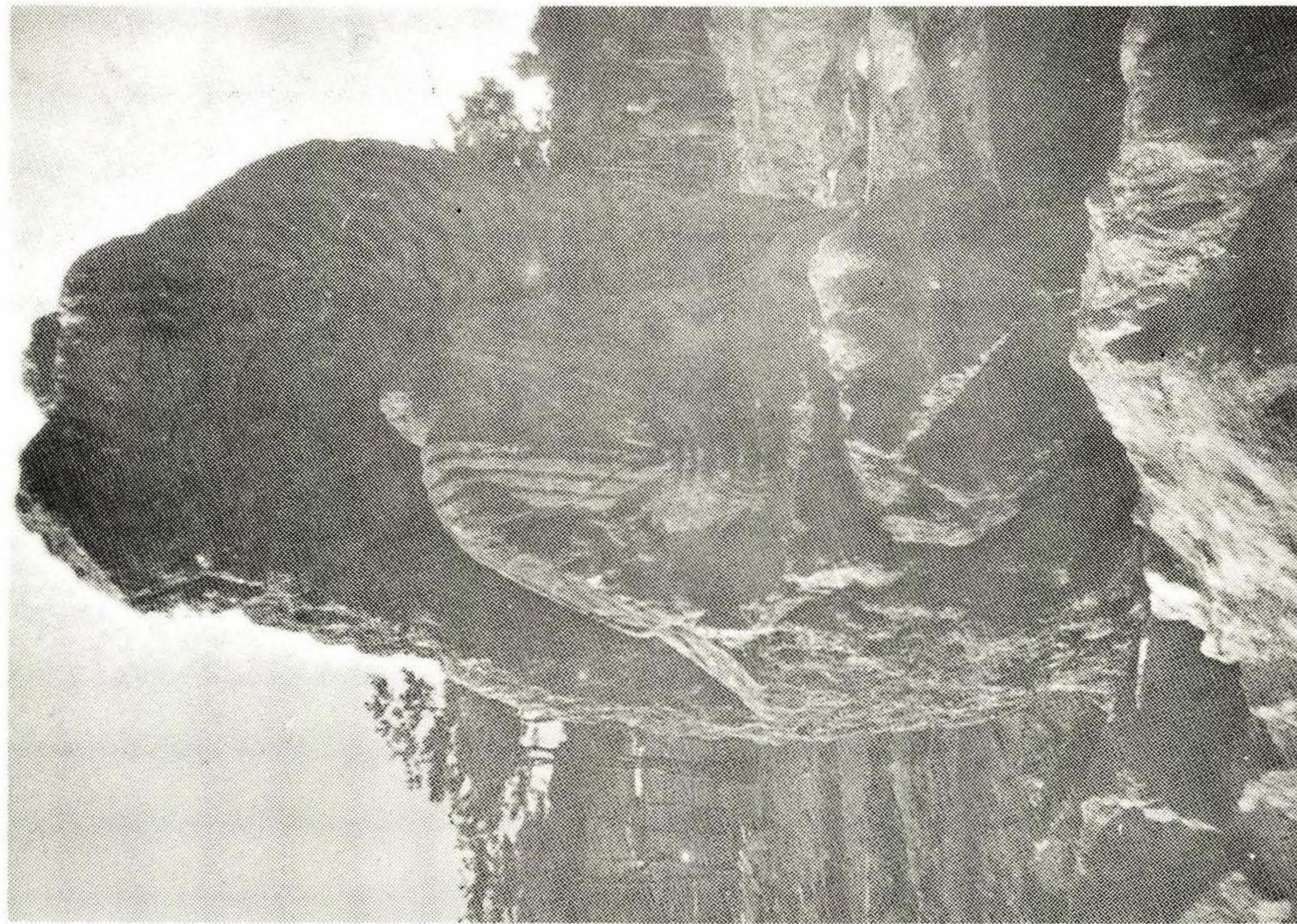
面圖 6-(2). 瑞山 磨崖 三尊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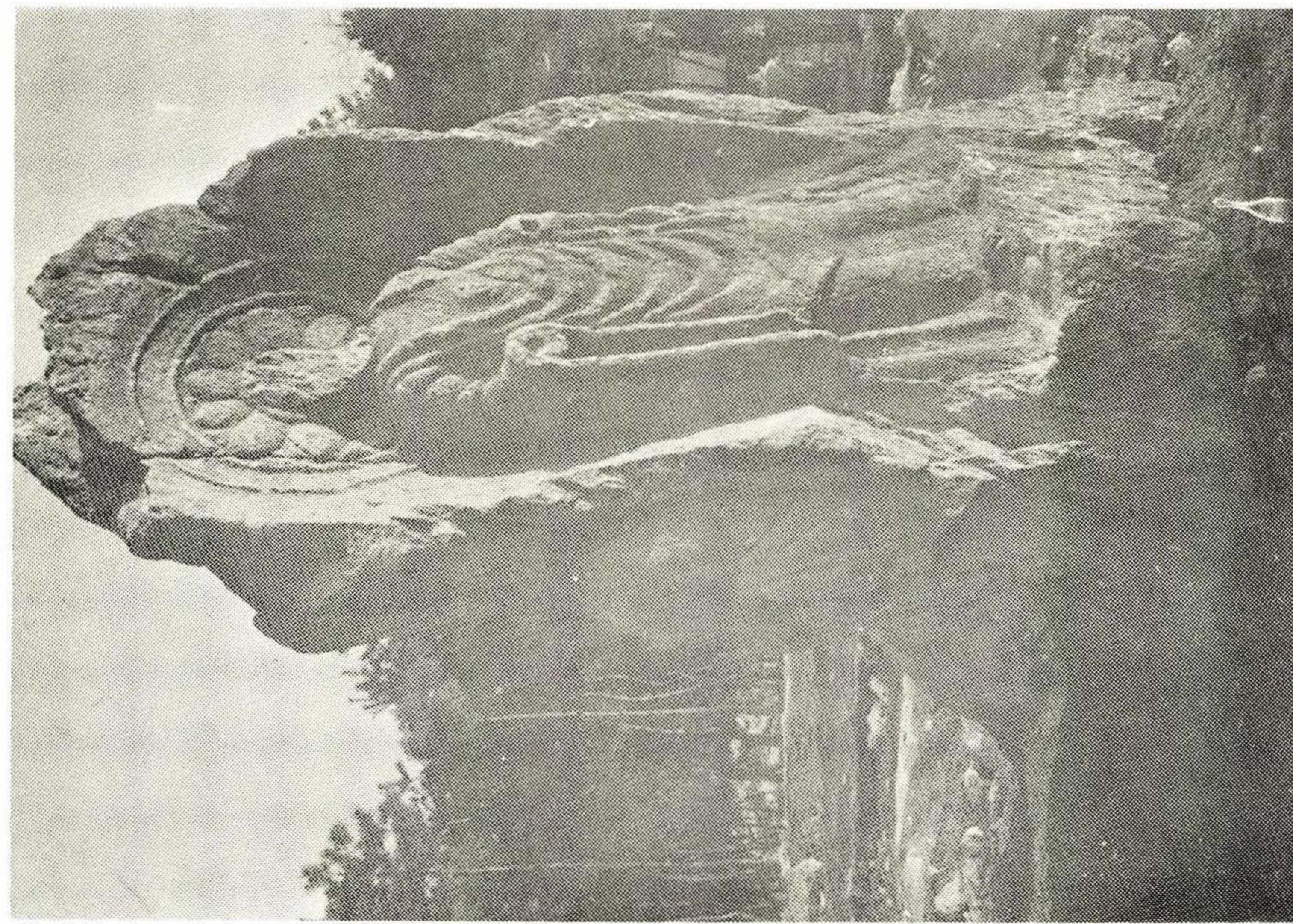
遺蹟近景(西南에서)



發掘前 坐佛 露出狀態(北東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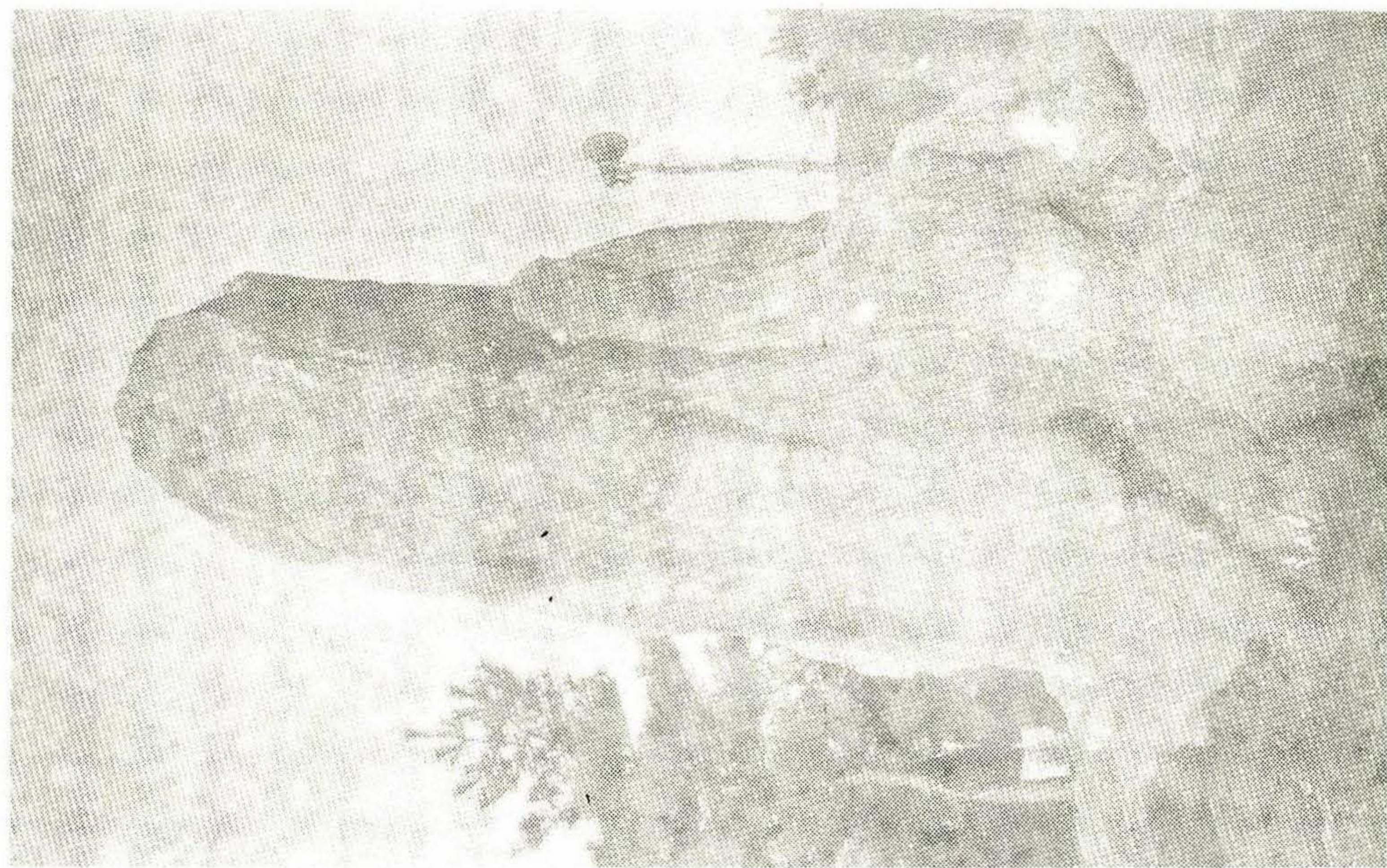
圖版 2 (1) 坐佛像(南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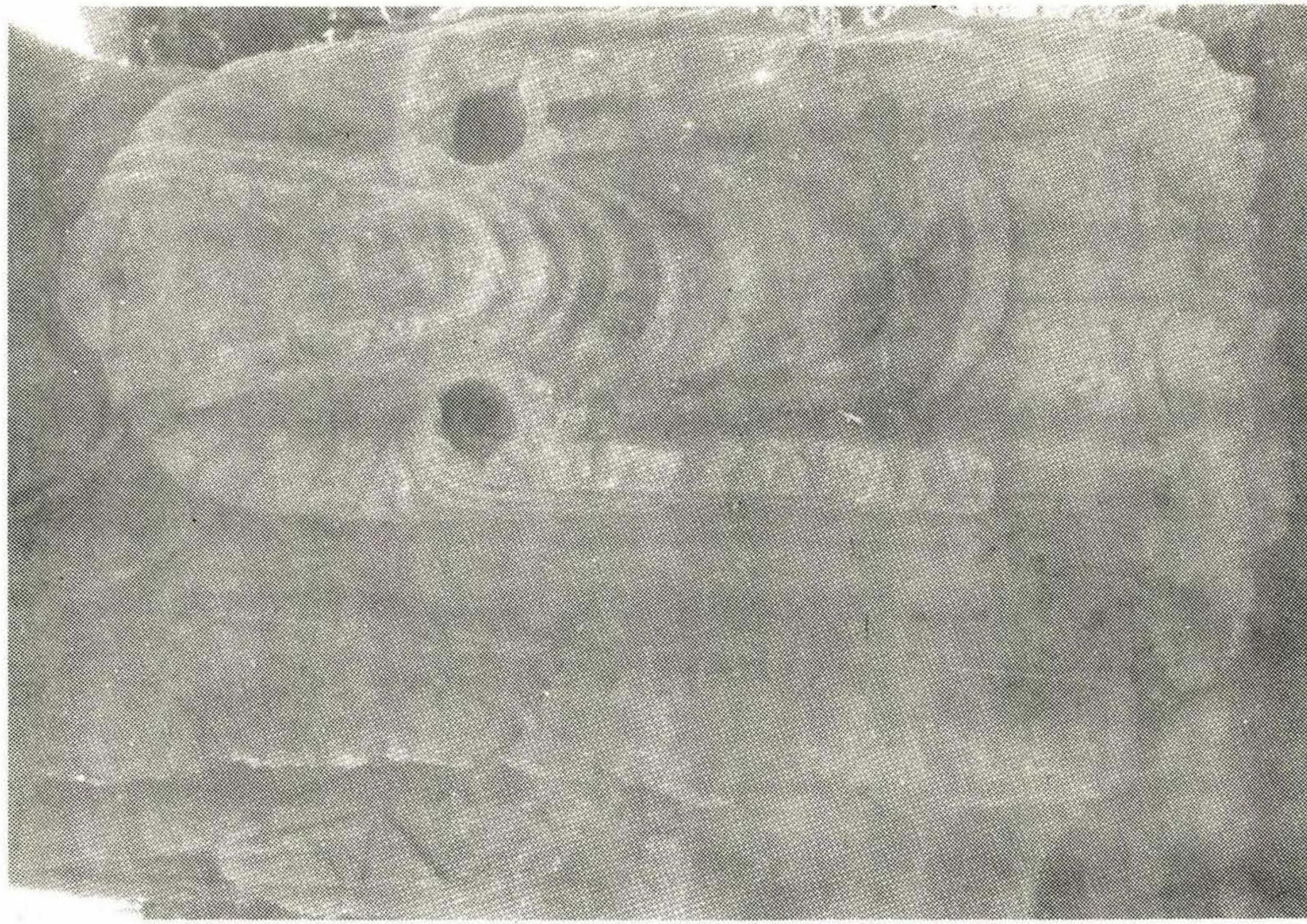
圖版 2-(2) 立佛像(北面)



圖版 3-(1) 坐佛(南·東面)



圖版 3-(2) 立佛像(東面)



圖版 4-(1) 小立佛像(西面)



圖版 4-(2) 瑞山磨崖三尊佛



圖版 5-(1) 泰安磨崖三尊佛





圖版 5-(2) 瑞山 磨崖三尊佛중 本尊佛의 光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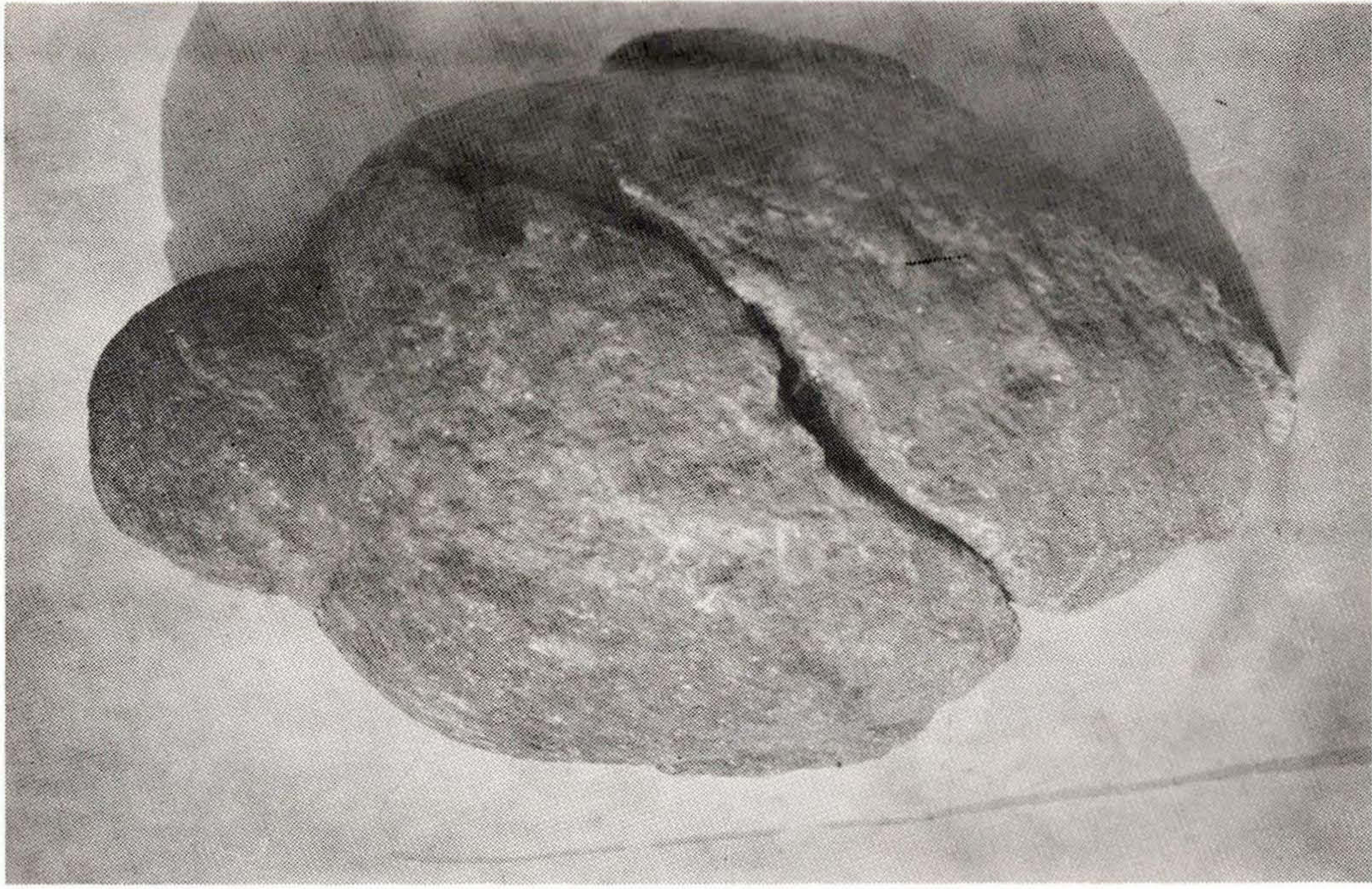
圖版 6. 禮山 四面石佛 南面坐佛像 光背



7-(1) 北面佛頭



7-(2) 佛頭 I



8-(1) 佛頭Ⅱ

圖版 8. 佛頭片 과 손



8-(2) 오른손 파편

